

시승격 60주년기념



浦項市史

제3권

浦項市史編纂委員會

市昇格六十周年

浦項市史

제3권

浦項市史編纂委員會

正三秋
福





由遠三溪狀
潘公

해맞이 축전







연오랑세오녀상 제막식



일월문화제



일월지



일월사당



일월신제

일월문화제





청소년 파워 축제



투호놀이



향토음식 페스티벌



포항 중성리신라비 학습대회

포항국제불빛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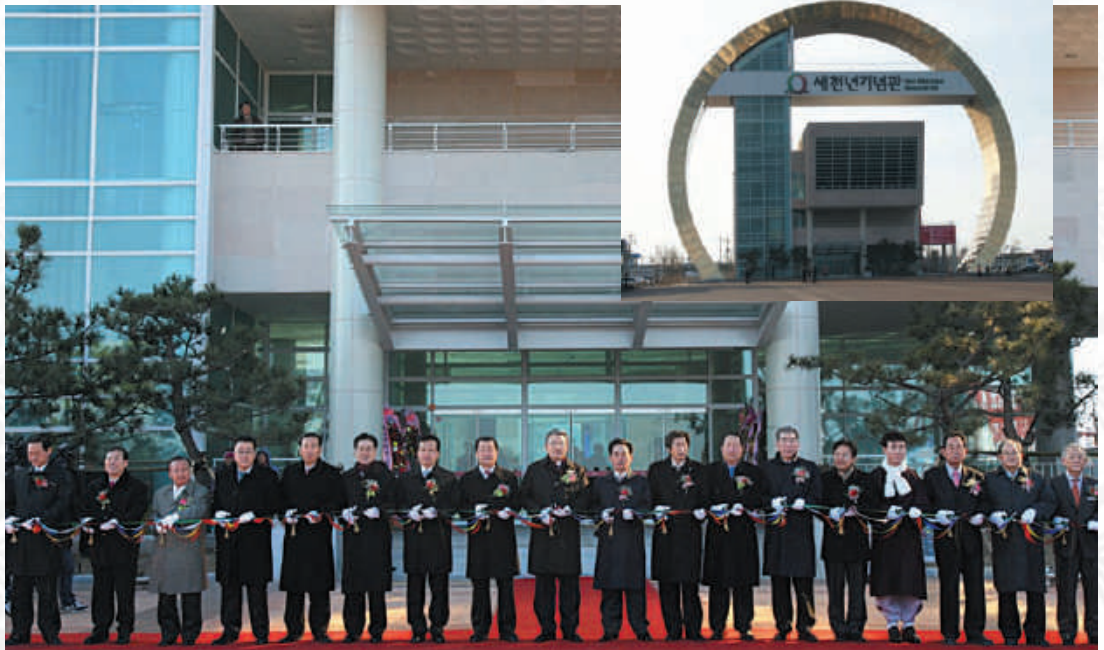




영일만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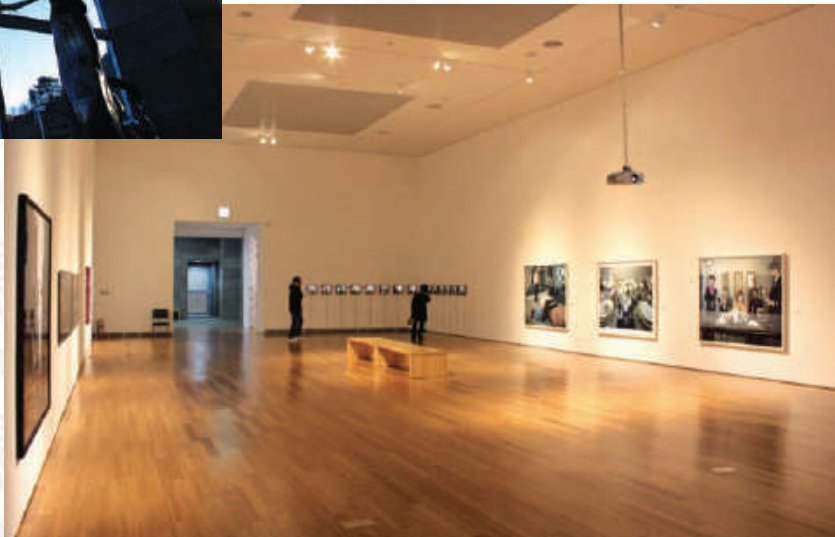


영일만르네상스 선포식



세천년기념관 개관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단오절 민속축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체육행사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포항스틸러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카퍼레이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포항 거울바다 돌고래 수영대회



전국 실업연맹유도대회

문화기관



포항문화원



포항예총회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공연



포항시립교향악단



포항소년소녀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포항시립극단



전국무용제



풍물굿한마당



포항전국사진공모전



포항시민가요제



빛물백일장



미술실기대회

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영일민속박물관



덕동민속전시관

도서관



포은도서관



영암도서관



석곡도서관

포항의 문화재



영일 냉수리신라비(국보 264호)



보경사 서운암 동종(보물 11-1호)



오여사 동종(보물 1280호)



포항 중성리신라비



보경사 괘불탱(보물 1609호)



원진국사비(보물 252호)



보경사 부도(보물 430호)

포항의 민속



모포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7호)



모포줄다리기



동해별신굿



월월이청청



죽장 지게상여놀이

포항 12경



1경 - 대보 호미곶 일출



2경 - 내연산 12폭포 비경



3경 - 운제산 오어사 추경(秋景)



4경 - 포스코 야경



5경 - 아름다운 덕동문화마을 숲



6경 - 죽장 하옥계곡의 여름



7경 - 경상북도수목원의 봄경치



8경 - 대보 호미꽃~임곡간 해안절경



9경 - 장기읍성의 일월맞이



10경 - 환호해맞이공원 주변경관



11경 - 사방기념공원 주변풍경



12경 - 중앙상가 실개천야경

浦項市史

제8편 문화

- 제1장 문 화
- 제2장 예 술
- 제3장 언론·출판
- 제4장 체 육
- 제5장 관광·레저
- 제6장 민 속
- 제7장 문화재·고적

제9편 인물

- 제1장 역대 고을원 명단
- 제2장 인 물

제10편 마을유래와 설화

- 제1장 마을 유래
- 제2장 설 화

부 록



차례

제8편 문화

제1장 문 화

제1절 문화활동 기관 · 13

1. 포항문화원 · 13
2. 포항시여성문화회관 · 15
3. 기 타 · 15

제2절 문화 시설 · 16

1. 박물관 · 16
2. 도서관 · 20
3. 공연 및 전시시설 · 23
4. 영화관 · 26

제3절 문화상 · 28

1. 포항시민상 · 28
2. 포항MBC삼일문화대상 · 29
3. 경상북도문화상 · 33

제4절 포항 문화의 정체성 탐구 · 34

1. 연구단체의 설립 · 34
2. 포항역사 및 포항문화 연구서 발간 현황 · 38
3. 포항문화의 정체성 · 46

제5절 일월문화제 · 49

1. 형산문화제 · 49
2. 일월문화제 · 49
3. 영일만축제 · 50
4. 일월문화제 · 51

제6절 각종 축제와 연례행사 · 53

1. 한민족해맞이축전 · 53



2. 포항국제불빛축제 · 55
3. 포항바다국제연극제 · 56
4. 단오민속축제 · 56
5. 포항아트페스티벌 · 56
6. 특산물 관련 행사 · 57
7. 기 타 · 58

제7절 포항시의 문화·예술 사업

1. 시승격 기념사업 · 59
2. 문화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62
3. 지역 고유문화 복원 및 전통문화 전승사업 · 68
4.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 70

제2장 예 술

제1절 국 악 · 80

1. 포항의 국악 · 80
2. 지역의 주목할 만한 단체들 · 81

제2절 무 용 · 84

1. 포항 무용의 등장 · 84
2. 무용협회 발족 · 85

제3절 연 예 · 89

1. 포항연예협회 탄생전야 · 89
2. 장시일 지부장 선출 · 90
3. 심근식 지부장 시대 · 90

제4절 음 악 · 93

1. 포항 음악의 태동 · 93
2. 음악가 박태준 포항거주 · 93
3. 포항 합창단 결성 · 94
4. 1970년대 후반 1980년 초반 · 95
5.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 결성 · 96
6. 포항시의 지원시대 열어 · 98
7. 음악연주 단체 · 100



제5절 미 술 · 105

1. 지역의 주목할 만한 단체들 · 110

제6절 사 진 · 112

1. 사진협회 포항지부 결성 · 112
2. 제1회 개항제, 모델촬영대회 · 113
3. 이도윤 최초로 개인전 · 113
4. 박원식 지부장 시대 · 114
5. 최영철 지부장 취임 · 115
6. 포항사협 지부 및 사진 동우회 · 116

제7절 포항지역의 연극 · 120

1. 포항연극의 발전 · 120
2. 극단 은하극장 · 122
3. 포항시립극단 · 126
4. 전국연극제 · 126
5. 연극 전문 소극장 늘푸른 공간 · 128
6. 1990년대 이후 극단 은하극장 · 128
7. 기타 극단 · 129
8. 1990년대 이후 포항시립극단 · 129
9. 포항 바다국제연극제 · 130



제8절 문 학 · 130

1. 해방공간과 청포도 다방시절 · 130
2. 한훤구 포항으로 이주 · 131
3. 문학단체 · 132
4. 박경용, 손춘익 신춘문예 당선 · 132
5. 흐름회 탄생 · 133
6.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탄생 · 133
7. 지역 창작의 근거지 '포항문학' · 134
8. 그 외 다수 · 137

제9절 포항여성의 문화예술 · 147

1. 국 악 · 147
2. 문 학 · 148
3. 미 술 · 151
4. 무 용 · 154

- 5. 음악 · 156
- 6. 연극 · 157
- 7. 사진 · 159
- 8. 생활예술 · 160
- 9. 여성교육과 여성축제 · 163

제10절 문화공간과 교육기관 · 167

- 1. 문화공간 · 시립예술단 · 167
- 2. 교육기관 · 173

제3장 언론 · 출판

제1절 언론 · 177

- 1. 방송 · 177
- 2. 신문 · 191

제2절 출판 · 203

제4장 체육

제1절 현대 포항체육의 태동 · 207

- 1. 포항체육의 변천 · 207
- 2. 포항시체육회 · 211

제2절 포항체육의 발전과 중흥 · 218

- 1. 시·군 통합 후 포항체육 · 218
- 2.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 219
- 3. 각급 연맹 및 협회 활동 · 219
- 4. 육성팀 및 프로 스포츠 · 234
- 5. 생활체육의 활성화 · 237
- 6. 포항체육의 중흥 · 240

제3절 국내·외 대회와 포항체육 · 241

- 1. 전국체육대회와 포항 · 241
- 2.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포항 · 247



3. 경북도민체육대회와 포항 · 250
4. 경북학생체육대회와 포항 · 255
5. 포항시민체육대회 · 257
6. 하계 올림픽대회 · 259
7.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 260
8. 체육관련 유공 수상자 · 261

제4절 포항의 체육시설 · 262

1. 체육시설 현황 · 262
2. 포항체육의 나아갈 길 · 262

제5장 관광 · 레저

제1절 포항의 관광개요 · 265

제2절 자연적 관광자원 · 268

1. 내륙산악관광 · 268
2. 해양관광 · 276

제3절 인문적 관광자원 · 287

1. 문화 관광 자원 · 287
2. 산업 관광자원 · 291
3. 사회교육 관광자원 · 292
4. 기 타 · 296



제6장 민 속

제1절 언 어 · 301

1. 음 운 · 301
2. 어 휘 · 304
3. 형태와 통사 · 310

제2절 민 요 · 316

1. 노동요 · 316
2. 의식요 · 320
3. 유희요 · 322

제3절 세시풍속 · 326

1. 정 월 · 326
2. 이 월 · 328
3. 삼 월 · 330
4. 사 월 · 331
5. 오 월 · 331
6. 유 월 · 333
7. 칠 월 · 334
8. 팔 월 · 334
9. 구 월 · 335
10. 시 월 · 336
11. 동짓달 · 336
12. 설 달 · 337
13. 윤 달 · 338



제4절 관혼상제 · 339

1. 관 례 · 339
2. 혼 례 · 339
3. 상 례 · 341
4. 제 례 · 342

제5절 민속놀이 · 344

1. 포항지역의 민속놀이 전승현황 · 344
2. 모포 줄다리기 · 344
3. 구진마을 앉은 줄다리기 · 347
4. 지계상여놀이 · 348
5. 월월이청청 · 350

제6절 민속 신앙 · 354

1. 동 제 · 354
2. 산신제 · 358
3. 별신제 · 362
4. 기우제 · 364



제7장 문화재 · 고적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 · 367

1. 국 보 · 367
2. 보 물 · 368
3. 사 적 · 372
4. 천연기념물 · 373
5. 중요민속자료 · 375

제2절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 376

1. 시도유형문화재 · 376
2. 시도기념물 · 380
3. 시도민속자료 · 384

제3절 지역문화재 · 385

1. 문화재자료 · 385
2. 등록문화재 · 394
3. 무형문화재 · 394
4. 문화유적 · 395
5. 명승지 · 412

제9편 인물

제1장 역대 고을원 명단

1. 흥해군 · 417
2. 연일현 · 418
3. 장기현 · 418
4. 청하현 · 419

제2장 인물

제1절 고대·중세 · 421

1. 상신 · 421
2. 충의 · 421
3. 고승 · 423

제2절 근세 · 424

1. 충의 · 424
2. 효자·열녀 · 439
3. 학행 · 475
4. 고승 · 490
5. 충비 · 492

제3절 근대·현대 · 493

1. 충의 · 493
2. 효자·열녀 · 521
3. 학행 · 521
4. 교육·문화 · 530
5. 덕행 · 537
6. 명관·청백리 · 541
7. 정계 · 543
8. 기인 · 548

제10편 마을유래와 설화

제1장 마을 유래

제1절 남구 지역 · 551

1. 구룡포읍 · 551
2. 연일읍 · 558
3. 오천읍 · 566



4. 대송면 · 572
5. 동해면 · 579
6. 장기면 · 587
7. 대보면 · 599

제2절 복구지역 · 604

1. 흥해읍 · 604
2. 신광면 · 619
3. 청하면 · 629
4. 송라면 · 641
5. 기계면 · 648
6. 죽장면 · 660
7. 기북면 · 674

제2장 설화

제1절 전설 · 679

1. 남구지역 · 679
2. 복구지역 · 696

제2절 민담 · 713



부록

1. 역대왕조계보 · 727
2. 역대연호 · 733
3. 고려시대의 봉작 및 관직표 · 734
4. 조선시대의 봉작 및 주요 관직표 · 735
5. 60간지와 시간, 방위 표시 · 737
6. 조선왕조품계표 · 738
7. 年度 · 干支 · 王年度 · 744



제8편 문화

- 제1장 문화
- 제2장 예술
- 제3장 언론·출판
- 제4장 체육
- 제5장 관광·레저
- 제6장 민속
- 제7장 문화재·고적

제1장 문 화

제1절 문화활동 기관

1. 포항문화원

1950년대와 1960년대는 6.25 전란의 폐허 위에 민족자존을 위한 재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문화운동을 통한 국가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원 설립 붐이 일기 시작하여 시·군 단위로 지방문화원이 속속 창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인 1964년 9월 24일, 우리 고장에서도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민의 의식계발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구)포항문화원이 창립하였으며, 초창기 이명석 원장(1965. 3. 24~1972. 3. 22)에 이어 70년대 이후 20여 년간 이종순 원장(1972. 3. 23~1995. 1. 23)이 이끌었다.

(구)영일문화원은 이보다 10년 뒤인 1974년 9월 1일에 창립하였으며, 초대원장에는 정봉섭이 취임하여 4대까지 연임하였고, 백명규(5대), 손인호(6대)가 뒤를 이었다.

문화운동으로 시작된 초창기 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이상은 정부로부터 크게 공감을 얻어 1965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제정을 가져오게 했고, 이때부터 전국의 지방문화원에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구)포항문화원은 정부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1969년 덕수동 55-39번지에 원사(院舍)를 건립하였으며, (구)영일문화원은 1972년에 흥해읍 성내리 39-13번지에 원사를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포항문화원과 영일문화원은 포항시와 영일군 지역에서 문화사업의 중추를 맡게 되었으며, 형산문화제, 일월문화제 등 지역의 연례문화행사를 주관하면서 향토문화 창달에 진력하는가 하면, 노인대학, 주부대학, 어린이 예능교실,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 등을 개설하여 사회교육사업에도 노력하였고, 일월신제(日月神祭)의 병행과 민속축제의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전시·발표 공간인 문화사랑방을 개설하는 등 문화공간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또 문화서적의 발간에도 힘을 기울여 영일문화원은 1983년~1984년에 《일월문화(日月文化)》를 2호까지 냈으며, 1994년에는 《영일만지역 고인돌문화연구》(배용일, 김용우)를 발간하기

도 했다. 또 포항문화원은 1985년 《포항문화(浦項文化)》창간호를 낸 이래 1993년까지 4호를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두 문화원은 1990년 전국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두 문화원도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합된 포항문화원은 (구)포항문화원장을 맡고 있던 이종순 씨가 초대 원장(1995.1~1996.11)을, 1997년부터는 이길생 씨가 2대 원장(1997.1~1999.1)을 맡았다. 원사(院舍)는 우선 (구)포항문화원 건물을 썼으나,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북구 우현동 543-1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2001년 12월 24일에 신축 원사로 이전하였다.

이후 포항문화원은 이병락 원장(2003.1~2003.10), 강해중 원장(2004.1~2006.2) 시기를 거쳐 현 권창호 원장에 이르는 동안 사무국장의 공채, 홈페이지 개설, 원장 경선에 이르는 변신을 거쳐 ‘지역 문화 센터’로서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다.

2006년 봄부터는 계간으로 소식지 <포항문화원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며, 향토사 및 향토문화 자료집으로 《국역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1999), 《포항지역구전민요》(박창원, 1999), 《다산정약용의 포항유배사가》(김윤규, 2001), 《포항마을의 유래와 전설》(2002), 《국역 읍지(邑誌)》(2003) 등을 발간하는 한편, 1994년에 4호를 내고 정간한지 15년 만인 2009년 1월에 《포항문화》 복간호(5호)를 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 내용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향토학생문예상 시상 하계총효교실 단오절민속축제 일월문화제 연오랑세오녀선발대회 월월이청청전승 포항문화관광시티투어 일월신제봉행 향토문화유적답사 덕동마을서당학교 교사직무연수 실버학교국악교실 찾아오는국악교육 아트스쿨	장승제, 지신밟기, 윷놀이, 투호놀이, 정월대보름 음식재현 초·중·고등학생 대상(문학, 음악, 미술 부문) 여름방학을 이용한 중학생 전통예절교육 널뛰기, 윷놀이, 한복맵시자랑, 투호놀이, 노래자랑 열린국악한마당, 한시백일장, 동해별신굿 재현 연오랑 세오녀 선발(39개 읍·면·동 대표 참가) 동해안 여성민속놀이인 월월이청청 전승노력 포항의 관광자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 일월사당에서 해와 달의 신위에 제사 5~10월 넷째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초등학교 4학년~중1년을 대상으로 한 한문 및 예절 지도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의 이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교육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악 교육(주3회)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오카리나 교육

포항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 및 선양을 위한 사업,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사업,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의 사회교육활동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 교육 사업으로 연 2회의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있는데, 2009년 전반기의 경우 서예, 한글, 한문, 향토문화의 이해, 생활영어, 미술, 대중가요, 풍물, 장구·민요, 요가, 스포츠댄스, 다도, 천연염색과 침선 등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 포항시여성문화회관

포항여성문화회관은 1976년 7월 9일 죽도동 73-6번지에 포항여성회관이란 이름으로 신축, 개관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 포항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1년 2월 26일,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 내 4B1L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81㎡ 규모의 새 청사를 준공하면서 포항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강당과 전시실 등의 문화공간과 각종 강의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에 대한 문화활동 및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문화활동’편 참조)

3. 기 타

1) 침촌문화회관

침촌(針村)은 현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죽전곡(竹田谷)과 구룡곡(九龍谷)을 포함하는 옛 지명으로, 1600년대부터 수원백씨 참판공(參判公)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던 고장이다. 그러나 350여 년 간 세거하던 마을은 2000년대 들어 장성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문중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 2005년에 75억원의 예산으로 장성동 1502-5번지 약 4,000㎡ 규모의 부지에 지상 5층의 침촌문화회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침촌문화회관에서는 32년간 (구)영일문화원 및 포항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한 백락구(白樂九) 수원백씨 참판공종회 회장이 앞장선 가운데 2007년 하반기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군자, 한문, 다도, 요가, 대중가요, 천연비누, 요가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차츰 지역사회의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는 북구 흥해읍 성내리 1-4번지 옛 흥해읍 청사 자리에 들어선 문화기관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생활에 유익하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는 대지 2,346㎡에 건물연면적 2,272㎡,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 3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7년 9월에 개관하였다. 흥해읍에서 관리하는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는 개관 후 계절별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제2절 문화 시설

1. 박물관

1) 국립등대박물관

1901년에 건립된 대보면 대보리에 위치한 대보 등대는 1982년에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등대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자, 경치가 좋고 신선한 해산물이 많은 이 지역을 연안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민족에게 해양 개발에 대한 의지를 심어 주고, 군민들에게 향토애를 북돋워 주기 위해 영일군에서는 등대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방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1983년에 착공,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자료수집 및 전시협조를 받아 1985년 2월 7일에 개관하였다. 1986년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준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약 4,950㎡의 부지에 344.87㎡ 규모의 전시실에는 광과표지류, 음과표지류, 전과표지류, 공작용공구류, 서적류, 사진류 등 국내외 자료 160종 710점이 전시되었으며, 이곳이 한반도의 지형상 호랑이 꼬리 부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장기갑호미등(長鬚岬虎尾嶺) 유래비와 가수 최백호의 <영일만친구>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1996년부터는 포항시로부터 관리 이관을 받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1996년 제2전시관 건립 설계를 하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 2002년 4월 19일에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재개관하였다.

27,416㎡의 부지에 제2전시관(1835.24㎡), 기획전시관(814.4㎡), 테마공원(4,171㎡), 전망대 및 등대휴게실(105.42㎡) 등의 시설을 갖추고 3,000여 점의 등대 및 해운항만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항로 표지 전문 기관인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관람객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

2) 영일민속박물관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온 일상생활 용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질되거나 소멸되어 왔고, 그나마 남아 있던 자료들은 1970년대 이후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골동품 수집 상인들의 손을 거쳐 도시인들의 장식품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의 민속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1983년 영일군에서는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당시 서상은(徐相殷) 영일군수와 정봉섭(鄭奉燮) 영일문화원장은 이 사업을 거군적(擧郡的)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내 공무원과 문화원 임원을 동원하여 자료수집운동을 전개, 1차로 3천여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흥해읍 성내리 36-13번지의 옛 흥해군 관아 건물인 제남헌(濟南軒)을 활용한 실내전시실(30평)과 1,300평의 부지에 꾸민 야외전시장에 일반생활용구, 고서적, 관혼상례류, 의관, 가구, 토기, 자기, 석물, 농기구, 어기구 등 2,500여 점을 전시하여 1983년 10월 29일 개관하였다.

1984년에 다시 2차 자료수집운동을 전개하여 추가로 3천여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85년에 제2전시관(한옥 54평)을 준공하고 야외전시장에 조경공사를 마쳐 현재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전통초가 1동, 연자방앗간 1동, 야외전시장, 유물보관창고(30평)에 총 4,60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영일민속박물관은 1987년 6월 30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준박물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없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포항시에서는 2008년에 (구)영일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연간 관람객은 2만7천여 명에 이른다.

3) 덕동민속전시관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의 민속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덕동민속전시관은 1992년에 덕동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이 마을 주민인 이동진 씨가 사설 전시관인 덕연관

(德淵館)을 건립하여 마을의 생활용구들을 수집, 전시한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원으로 지금의 민속전시관을 지어 2004년 5월 5일 재개관하였다.

덕동민속전시관에는 조선 중·후기 양반 가문의 가족제도와 문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600여 종 1,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조선 중·후기 호적단자를 비롯해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고서적과 서찰, 200년 전 새겨진 서원 현판과 재산 목록, 땡기와 족두리 등의 관혼상제 물품, 저울이나 화로, 베틀, 초롱 등 서민들의 생활용품, 가래와 쟁기 등 농기구들이다.

4) 포스코역사관

기업 역사관이나 박물관이 선진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개별 기업의 역사관이 흔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역사관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역사관은 1999년 8월 포스코 임원회의 때 역사관 건립 추진 지시가 있는 뒤, 2000년 9월의 마스터플랜 수립, 2001년 6월의 기본 설계, 2001년 7월의 착공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2003년 7월에 개관하였다.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문화, 비전을 담은 포스코 역사관은 포항시 괴동동 1번지에 위치하며, 9,917㎡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3,636㎡, 전시면적 1,983㎡의 지상 3층 규모다.

특히 철강 불모지에서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 역사는 포스코인들이 온갖 역경과 싸워 이룩한 결과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 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5) 장기충효관

장기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충절의 고장이면서 신라 때부터 해방(海防) 기지로서 책무를 다해 온 유서 깊은 고을이다.

임진왜란 때 경주성 탈환에 일조를 한 서방경, 서극인, 이대입, 구한말 장현문, 정치익 같은 의병장들의 열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같은 석학들이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지역의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영향으로 문화적 향기를 드높인 곳이기도 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전통들이 차츰 잊혀져 감을 안타깝게 여긴 장기발전연구회에서 관계 당국에 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국비 4억원을 배정받기에 이르렀고, 이에 힘입어 장기면 마현리 276-3번지에 1,353㎡ 규모의 부

지를 마련, 2004년 6월에 충효관을 건립하였다.

장기충효관은 연면적 290㎡(2층) 규모로 1층은 서예실, 2층은 전시공간을 갖춘 교육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기계면 문성리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져 왔다. 1971년 9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등 지방행정실적을 종합 비교·평가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린 모범부락에서 현장의 경험을 얻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 비교행정회의를 문성리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전국의 마을을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는 데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포항시에서는 기계 문성리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8년 9월 17일에 기계면 문성리 357-1번지 일대 7,654㎡(건물 1동, 825㎡)에 42억3천만원(국비 11억, 도비 8억, 시비 23.3억)을 들여 착공하여 2009년 9월 17일 개관하였다.

2층으로 된 기념관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임을 뒷받침하는 공문서와 책자, 사진자료, 정부포상자료, 비문, 박정희 대통령상 등이 전시돼 있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은 당시 자료를 수집, 보존하면서,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또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새마을운동 홍보관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7) 새천년기념관

포항시는 2006년,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지정 일출행사 개최를 기념하고 민족화합을 통한 통일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새천년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포항시 남구 대보면 호미곶 해맞이광장 내 5,890㎡(연면적 5,074㎡)에 지상 3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총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 2009년 12월 28일 개관하였다.

새천년기념관에는 지하층에 공예공방체험관 및 수장고, 1층에 ‘빛의 도시 포항 속으로’ 전시관, 2층에 바다화석박물관, 3층에 영상세미나실과 시청각실이 설치돼 있다. 포항시에서는 호미곶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념관 자체가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품이 되게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도서관

1) 서경도서관

포항에 도서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으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포항에서 공공도서관이 설립된 것은 1962년 겨울로, 동빈로 1가 포항방송국의 임시 청사였던 30여 평 규모의 콘서트 건물을 인수하여 도서 1,500여 권과 40여 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개관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포항시장을 비롯한 이 고장의 뜻있는 인사들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때 실업가 오실광(吳實光)이 7천7백불(弗)의 도서관 건립기금을 회사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도서관 명칭은 그의 아호 ‘서경(曙耕)’을 따서 포항시립서경도서관으로 정했다.

오실광의 사재 출연을 계기로 포항시에서는 미군 제44공병대로부터 시멘트와 목재 등을 지원받아 현 위치인 덕수동 55번지의 국유지에 건평 110평, 2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1963년 3월 3일에 착공하고, 같은 해 8월 15일에 준공을 본 서경도서관은 1층에 열람실 2개와 장서실 및 사무실을 두었으며, 2층은 포항문화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서경도서관은 1984년 시립영암도서관이 개관할 때 장서를 영암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에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시립영암도서관

시립영암도서관은 1980년대 초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黃大鳳) 회장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운동에 뜻을 두고, 자신의 사재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포항시에 기증한 것이다.

1984년 설계에 들어간 후 1985년 4월 1일 포항시 대도동 632-11번지 국공유지 7,292㎡에 도서관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1986년 3월 22일 완공하여 1987년 4월 15일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01㎡ 규모로 개관하였다. 도서관 명칭은 기증자인 황대봉 회장의 아호인 영암(嶺巖)을 넣어 포항시립영암도서관이라 하였다.

영암도서관은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보관서고,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신문열람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2008년 말 현재 612석의 열람석에 7만6천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2009년부터는 NIE, 역사논술, 북아트, 예쁜손글씨 등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월 3회 영화를 상영하는 등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3) 영일공공도서관

북구 흥해읍 약성리 100-2번지에 위치한 독립영일공공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1990년 11월이다.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기 전인 1989년까지만 해도 영일군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흥해읍에 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고 1989년 8월 31일에 착공하여 이듬해 8월 25일에 준공, 11월 9일에 영일군공공도서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1991년 3월 25일에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으로 개칭했다. 영일공공도서관은 2,143㎡ 부지에 연면적 965㎡, 300석 규모에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열람실, 평생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 1월말 현재 69,584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 교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서예·한문교실, 초·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글짓기지도 교실 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 글향아리독서회를 운영하여 2001년부터 작품집 《글향아리》를 발간하고 있다.

4) 구룡포읍민도서관

구룡포읍민도서관의 개관은 구룡포 출신 재경유학생연합향우회 회원들이 1984~1985년 겨울방학을 이용, 구룡포초등학교에서 독서실을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에 건전한 정신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목적으로 1986년 8월 17일, 김영수 씨 창고를 임대하여 40석의 열람석에 3,500권의 장서로 출발하였다.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번지에 위치한 구룡포읍민도서관은, 부지면적 992㎡에 연면적 526㎡(3층) 규모이며, 2007년에 포항시, 사랑의 열매,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2009년 4월 현재 13,5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이접기, 밸리댄스, 향토순례 등의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5) 오천공공도서관

오천읍 용덕리 263-1번지에 위치한 오천공공도서관은 1999년 5월 4일에 개관하였다. 1997년, 포항시에서는 오천읍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이 해 12월 16일에 옛 오천읍청사 부지에 도서관을 착공,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약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 만인 1998년 12월 25일에 완공하였다. 포항시의 위임을 받아 오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천공공도서관은, 364석의 열람석에 3만6천여 권의 장서(2008년말 현재)을 보유하고 있으며, 1층에 CD부스, 비디오룸, 사랑방, 창작실, 공연실습실, A/V실 등을 갖춘 종합 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6) 시립포은도서관

포항에 소규모 도서관이 몇 개 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는 것은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이었다.

2006년 12월 포항시청사가 대잠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의 활용문제가 대두될 때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구)포항시청사를 도서관으로 개축하기로 하고, 2007년 1월 10일 보수공사를 시작, 3월 2일 어린이도서관을 먼저 개관하고, 그 해 5월 7일에 본관을 개관하였다.

‘포은(圃隱)’은 개관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하여 지은 것으로 포항이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이름이다.

포은도서관은 2008년 말 현재 6,815㎡의 부지에 연면적 3,603㎡이 규모로 3개의 열람실과 2개의 자료실, 750석의 열람석과 1,406㎡ 규모(열람실1, 자료실1, 180석)의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6만4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동화구연 등 약 20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7) 도서정보센터

도서정보센터는 2006년 12월 포항시청사를 신축, 이전할 때 시청사 옆 문화복지동 3층에 도서관 시설로 개관하였다. 928㎡ 면적에 2개의 자료실, 95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는 도서정보센터는 2008년 말 현재 약 1만8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구연, 영어동화 등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8) 동해석곡도서관

동해석곡도서관은 2009년 3월 27일 동해면 도구리 737-8에 개관하였다. 미려한 외관에 부지 4,468㎡, 지상 3층, 연면적 1,210㎡의 규모로 건립한 동해석곡도서관은 지난 2007년 설계 현상공모를 통한 테라노바 작품이다.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열람석은 200석이다. 장서는 1만3천 권이며, 원스톱 대출·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석곡(石谷)’이라는 명칭은 지역정신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동해면 출신의 조선말 의학자이자 한학자인 이규준(李圭駿)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3. 공연 및 전시시설

1) 포항문화예술회관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포항에는 이렇다 할 공연 시설이 없었다. 1961년에 문을 연 포항시민회관이 있었지만, 개관 당시 6만 명에 불과하던 포항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항시민을 위한 공연시설로서는 규모가 너무 작고, 시설도 낡아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포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은 1988년 4월 당시 포항 출신 이진우 국회의원이 설립을 제의하면서 구체화됐다.

4월 29일에 각계각층의 시민 88명이 참가한 시정자문위원회가 추진을 위한 일체 권한을 위임 받았다. 시정자문위원회는 5월 4일, 건립 장소를 남구 대도동 303-1번지 해도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건설부와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해 1989년 3월 1일 토지매입보상 실시와 함께 건립추진 기획팀을 구성했다. 기획팀은 국내외 여러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한 뒤 1990년 4월 20일 설계를 마무리했다.

이어 1991년 4월 15일에는 포항시 조례 1591조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소 직제가 설치됐고, 사업소장과 계장, 공사감독, 직원 등 6명으로 이뤄진 건설사업소가 구성돼 공사에 소요될 예산 산정과 건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26일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럭키개발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10월 21일 공사가 시작됐고, 착공 3년만인 1995년 5월 26일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됐다. 총 2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포항문화예술회관은 부지 면적 31,988㎡, 건물연면적 12,94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

내부 시설로는 982석의 대공연장과 261석의 소공연장을 비롯, 교향악단연습실 331㎡, 1층 전시실 396㎡, 2층 전시실 215㎡ 등을 갖추고 있다.

건립비 280억원은 국비 6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07억원, 문예기금 2억원, 포스코 성금 50억원으로 충당됐다.

현재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관장(5급)을 비롯하여 관리담당, 기획홍보담당, 무대운영담당 등 20여 명의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제100회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0.23) 등 80여 회의 각종 연주회 및 발표회와 제9회 경상북도서예전람회(5.4~5.9) 등 20여 회의 각종 전시회가 열렸다.

2) 효자 아트홀

포스코에서는 포항제철소 건립 초창기에 직원의 정착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효곡동에 사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사원복지후생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효자 아트홀도 그러한 취지에서 건립되었다.

1978년 5월 남구 효곡동 299-191번지에 공사비 26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 연면적 6,137㎡,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1979년 12월 31일에 준공하였다. 개관 공연으로 1990년 2월 27일 선화예술무용단의 초청 공연이 있었다.

건립 당시만 해도 제철학원(현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초·중·고등학교 강당 겸 음악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명칭을 효자음악당으로 했으나 지역의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월부터 효자아트홀로 변경하였다.

효자아트홀은 오케스트라 플렘버(120명)가 등단할 수 있는 회전무대와 885석의 좌석을 구비하여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오페라와 발레 등 대규모 예술단의 공연이 가능한데, 당시까지만 해도 변변한 공연시설이 없던 포항으로서는 이로 인해 고급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최근 7년간(2002~2008) 연평균 영화상영 290회(관람인원 149,800명), 공연 32회(관람인원 24,051명), 대관 46회(관람인원 22,535명) 등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관 후 2009년 4월까지 누적 관람인원 408만9천 명을 기록 중이다.

30년 된 건물이지만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과적인 공연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모든 공연과 영화 상영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외부 단체에 무대 사용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포항시립미술관

미술관 건립은 포항시민의 문화적 숙원사업이었다.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1도 1미술관’ 건립계획에 의거 2003년 포항시에서는 도립미술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미술관 건립을 포기함에 따라 도립미술관 유치는 무산되었다.

이에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해 환호동 351번지 환호해맞이공원 내 포항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확정하면서 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되었다.

2004년 지방재정법에 의한 포항시립미술관 건립공사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05년 6개 업체가 출품된 설계현상공모를 거쳐 2006년 11월 15일에 착공하였다.

2008년 5월 직제 구성, 11월 17일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09년 1월 21일 ‘포항시립미술관의 성격 정립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의 준비 과정

을 거쳐 2009년 12월 22일에 개관하였으며, 초대 관장으로 김갑수 전 포항예술문화연구소 소장이 취임했다.

대지면적 8,008㎡, 연면적 5,241㎡(지하1층, 지상2층, 별관2동) 규모와 사업비 132억원으로 건립된 포항시립미술관은 해맞이공원과 연계하여 주변경관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4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실, 편의시설 등이 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의 이미지 창조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철저한 예술경영으로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문화 인프라 구축, 순수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책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 및 도심 곳곳에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미술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아트웨이(Art Way)’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중앙 아트홀

1961년 4월 18일, 덕산동 1113-12번지에 대지 355평, 연건평 423평에 630석 규모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시민회관이 준공됐다.

일명 ‘시공관(市公館)’으로도 불렸던 시민회관은 1990년대 중반까지 포항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서 음악회나 연극 공연, 각종 행사와 시민강좌, 민방위교육 등 연간 260여 차례의 다양한 행사를 소화해 왔다.

그러나 시민회관은 현재 1995년 포항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10여 년 간 방치돼 오다가 2009년에 포항시에서 이를 해체하고 연면적 2,676㎡에 275석 규모의 공연장과 275㎡ 규모의 전시실을 신축 중인데, 명칭은 공모를 통해 ‘중앙 아트홀’로 정하였다.

5)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시청 문화복지동은 2006년 포항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청사 오른쪽(남구 시청앞길 100)에 별도의 공연시설로 지은 것이다.

연면적 863㎡에 596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2006년 12월에 개관하였다.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은 약 8만 명이다.

6) 기타

그 밖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포스코갤러리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 본사
- 롯데문화센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 127-9 롯데백화점
- 기동작가촌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 갤러리작은행복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251
- 서정갤러리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온천 내
- 수성갤러리 포항시 북구 신흥동 700-11 수성빌딩 지하
- 유갤러리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7-5
- 동굴갤러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421-1
- 포항아트센터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8-17(3층)
- 중앙아트센터 포항시 북구 대흥동 719-121(3층)
- ARTP센터 포항시 남구 유강리 대림한숲3단지 상가 302
- 이팝작은갤러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중학교 입구 지하도

4. 영화관

포항 지역 최초의 영화관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로 일본인이 건립한 상원동의 포항극장(수용인원 600명)이었다.

광복 후에는 한인이 인수하여 한 동안 포항시내의 유일무이한 영화관이자 문화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1950년 6.25전쟁 때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1961년 시공관이 개관할 때까지 포항시 지역의 영화 상영은 가설극장에 의존 해 왔다. 시공관이 개관한 후에도 흥행업을 직영할 수 없는 포항시로서는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여 민간에 운영권을 이양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구)영일군 지역에 영화관이 들어선 것은 1950년대의 일이다. 1954년 구룡포읍 중 앙리 459번지(현 구룡포4리)에 개설된 구룡포제일극장(수용인원 390명)이 영일군 지 역 최초의 극장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포항시, 영일군 지역에는 사설 영화관 개설 붐이 일어나 관내에 총 13개의 극장이 문을 열었다.

다음 표는 1960년대에 개설된 영화관 현황이다.

구 분	극장명	개관일자	소재지	수용인원
포항시	포 항 극 장	1964. 10. 2	대흥동	570
	시 민 극 장	1964. 10	상원동	500
	대 신 극 장	1964. 10. 20	대신동	440
	아 카 데 미 극 장	1965. 7. 21	여천동	600
	부 민 극 장	1966. 2. 3	죽도동	500
영일군	흥 해 극 장	1960. 4. 10	흥해읍 성내리	400
	오 천 극 장	1961. 8. 14	오천읍 세계리	360
	양 포 극 장	1962. 12. 1	장기면 양포리	300
	연 일 극 장	1963. 4. 9	연일읍 생지리	300
	구 룡 포 제 일 극 장	1963. 7. 1	구룡포읍 중앙리	620
	지 행 극 장	1963. 10. 25	장기면 읍내리	300
	흥 해 제 일 극 장	1964. 6. 17	흥해읍 성내리	460
	동 보 극 장	1965. 6. 30	청하면 미남리	300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텔레비전 보급의 여파에 따른 관객수의 감소로 극장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농어촌 지역 극장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까지 현재 포항에는 1960년대에 개관한 시민극장, 아카데미극장, 포항극장과 함께 가고파극장(대흥동 719-121), 명보극장(대흥동 732-12), 중앙극장(대흥동 593-12), 죽도극장(죽도1동 597-3) 등 총 8개의 극장이 운영되었다.

2003년 6월 덕산동에 포항 최초의 복합상영관인 메가라인(현 CGV북포항)이 개관하고, 이듬해 포항시네마(현 롯데시네마)가 등장한 후 이들 소규모 극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2009년 4월 현재 포항 지역의 복합상영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화관명	소재지	시설 규모	개관일자	연간관객수
CGV북포항	덕산동 235~4	8개관(1,672석)	2003.6.20	350,000
롯데시네마	대흥동 563~3	8개관(1,618석)	2004.4.10	500,000
CGV포항	상도동 581	7개관(1,361석)	2007.8.29	690,000

제3절 문화상

1. 포항시민상

포항시민상은 명량하고 실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포상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다. 포항시민상은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향토방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수상대상자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민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연도	구분	부문	당시 직위·직급	성명
1979	본상	교육문화 사회복지 산업경제	동지상업고교장 시정자문위원장 포항제철부사장	김영 박경호 정명식
	장려상	교육문화 체육진흥 지역개발 향토방위	경향신문기자 포항전문대교수 상업 송도파출소경장	김기윤 이태준 김진국 유상용
1990	본상	교육문화 사회복지	영흥초등학교장 선린병원협동원장	한윤봉 김종원
	장려상	사회복지	포항우체국계장	김설자
1999	본상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중앙고등학교장 포항시체육회사무국장 포항기독병원이사장 포항상공회의소사무국장 삼도주택대표	정주영 김동호 한영빈 김재홍 허상호
	장려상	교육문화 사회복지 산업경제 향토방위	창포초등학교교사 포항향토청년회장 포항화훼법인대표 포항북부경찰서 수사2계장	이석우 권원수 강형목 권혁주

연 도	구 분	당시 직위 · 직급	성 명
2000	본 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포항시지회장	김 천 수 김 수 근
2001	본 상	포항지역발전협의회상임고문 포항불교여성회장 영일고등학교장	오 일 수 김 경 희 최 상 하
2002	본 상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명예회장 새싹유치원장	박 영 근 김 춘 희
2003	본 상	포항시행정동우회장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이 상 훈 황 복 희
2005	본 상	포항1대학교수	배 용 일
2008	본 상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권 순 남
2009	본 상	한국차인연합회 포항차인회장	김 인 순

2. 포항MBC삼일문화대상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게 하고, 더불어 사는 참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로 1996년 포항문화방송과 삼일가족이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본래 명칭은 ‘포항MBC 문화대상’이었으나 2001년 제6회 시상식 때부터 공동주최사인 삼일가족의 회사명을 포함시켜 ‘포항MBC삼일 문화대상’으로 바꾸었다.

추천 자격은 포항문화방송의 가시청 권역인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개인 및 단체·기업으로 14회(2008)까지 총 8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역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0 제8편 문화

연 도	구 분	부 문	당시 직위·직급	성 명
1996	본 상	사 회 환 경 산 업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기곶등대소장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쌍용양회주식회사신소재포항공장	하 금 출 박 순 매 단 체
	장려상	사 회 환 경 산 업	울진청자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수질환경개선팀장 강원산업	단 체 전 희 동 김 성 구
1997	본 상	사 회 예 술 환 경 산 업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 삼정강업환경과장 주식회사 대룡	황 태 연 정 의 춘 단 체
	장려상	사 회 예 술 환 경 산 업	포항문학사 경주관광개발공사비상계획과장 만도기계경주공장생산부과장	단 체 박 기 수 김 대 환
1998	본 상	사 회 예 술 환 경	경주학술포럼 회원 동양석판	신 평 단 체
	장려상	사 회 예 술 환 경	YWCA소년소녀합창단 포항시환경국	단 체 성 상 효
1999	본 상	사 회 환 경	포항제철설비실지역협력팀장 선덕여자중학교교사	박 승 대 정 재 윤
	장려상	예 술	포항소년소녀합창단 영일고등학교관악합주단	단 체 단 체
		환 경	학산동새마을부녀회 포항YWCA	김 달 금 김 애 속
2000	대 상		경주교도소종교위원	박 윤 자
	본 상		(사)동대해문화연구소 흥해공업고등학교교사	단 체 박 오 원
	우수상		경주보건소화랑봉사회 김동은무용학원장 경주시산내면장	단 체 김 동 은 양 위 동
	특별상		포항중앙고등학교장 포항향토청년회	정 주 영 단 체

연도	구분	부문	당시 직위·직급	성명
2001	대상	봉사	포스코음악치료봉사회	단체
	본상	교육	유성여자고등학교장	김종해
		환경 봉사 문화예술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원화회 한국차인연합회포항차인회장	이진섭 단체 김인순
특별상	교육 봉사 봉사 문화예술	영덕여자고등학교장 포항북부경찰서교통지도계 바르게살기운동지품면협의회회장 신라문화원	박인현 최진 박대락 진병길	
2002	본상	사회봉사 환경산업기술 문화예술체육	경주동부소방서부소장 노거수회 소설가	신경철 단체 이대환
	특별상	문화예술체육	한국체육대학교 포항동해중학교교사	이신미 황인
2003	대상		동지회	단체
	본상	사회봉사 교육학술 문화예술	개인 포철지곡초등학교교사 영덕월월이청정보존회	황철범 이기태 단체
		특별상	동국대학교교수 포항시립연극단원	이점원 이협수
2004	대상		노래하는 좋은 사람들	단체
	본상	사회봉사	사랑의 열차 청소년자유학교장 포항시안전봉사해난사고구조지원단	단체 김윤규 단체
		특별상	사회봉사 학술문화	LG경주중앙점대표 포항예술문화연구소

연 도	구 분	부 문	당시 직위·직급	성 명
2005	대 상		작은자 선교회 회장	김 성 근
	본 상		포항명도학교자원봉사팀 한국HID특수재난구조단경북지사 동국대병원	단 체 단 체 이 정 호
	특별상		영덕경찰서 징검다리 참빛봉사회장	차 상 원 단 체 황 국 성
2006	대 상		APC(재미있는물리를하는사람들)	단 체
	본 상		화랑고등학교장 무료공부방 운영 한마음봉사단	서 정 호 차 광 명 단 체
	특별상		짜장봉사회 오천공공도서관자원봉사자회 한동대선린병원	최 천 귀 단 체 단 체
2007	대 상		베들레헴공동체	단 체
	본 상		우리공동체대표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 경주문화원장	황 화 자 김 복 용 김 태 중
	특별상		포스텍 화공과 교수 포항 목련인터랙트클럽	차 형 준 단 체
	글로벌이웃상		KT포항지사 올림지점	단 체
2008	대 상		동화작가	김 일 광
	본 상		(사)신라만파식적보존회 대한노인회울진군지회근남면분회	문 동 옥 단 체
	특별상		택시 기사 월드비전감포지역아동센터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영덕군지회	김 영 수 전 연 수 단 체

3. 경상북도문화상

경상북도문화상은 경북의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을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1956년 제정되었으며, 2008년 현재 49회째를 맞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학, 체육, 언론출판, 문화부문 등 8개 분야에 걸쳐 시상하는데,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각 분야별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사회적인 덕망과 신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08년까지 49회에 걸쳐 총 29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수상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경복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 이 중 포함 지역 출신으로 경상북도문화상 수상자는 2008년까지 14명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수	연도	부 문	당시 직위·직급	성 명
14	1973	문 학	포항실업전문대학교수	한 흑 구
23	1982	문 학	동지상고 교사	손 춘 익
24	1983	예 술	KBS포항방송국방송과장	김 삼 일
30	1989	예 술	미술협회경북지부장	조 희 수
31	1990	문 학	빈내과의원원장	빈 남 수
33	1992	체 육	영일군체육회상근부회장	이 선 오
36	1995	문 화	포항전문대학 교수	배 용 일
37	1996	공 연 예 술	예총포항지부장	신 상 료
38	1997	문 화	포항문충초등학교 교사	이 석 우
40	1999	체 육	포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 태 준
43	2002	언 론 출 판	(주)포항시네마 대표이사	권 오 신
44	2003	공 연 예 술	한국무용협회경북도지회장	김 화 숙
47	2006	조 형 예 술	한국미술협회포항지부 회원	신 백 균
		문 학	포항고등학교장	조 주 환

제4절 포항 문화의 정체성 탐구

1. 연구단체의 설립

1)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1988년 2월 27일 창립된 포항지역사회연구소(포사연)는 사회단체 등록 뒤 계간《포항연구》(통권 1~43호)와 연구논총《포항사회의 진단과 전망》1~3권을 발간하며 포항의 주요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역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에는 지역의 케이블방송사와 함께 ‘포항광장21’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진행해 지자체의 문화정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어 서울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열린 ‘세계NGO대회’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공식 참가했으며 형산강에 대한 종합인문지리지인《형산강》과 알기 쉬운 포항역사서인《한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등을 발간해 향토사 연구와 보급에 활동의 폭을 넓혔다.

(대표 이재섭 이사장, 포항시 남구 대도동 91-2번지, 50명)

- 1989. 6. 1 《포항연구》창간호 발간
- 1992. 1. 포항 영일 핵폐기장 건설반대 포항시민대책회의- 서명운동, 강연회
- 1992. 6. 환경보전 영포지역 민간단체협의회, 시민환경논단
- 1993. 10. 유봉산업 1차 폐기물 누출사고 경위조사 활동
- 1994. 5. 포항지역 환경오염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1994. 5. 창립 6주년 기념심포지엄 “포항·환경·환경운동” 개최
- 1994. 6. 유봉산업 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및 제철화학 폭발사고 연대활동
- 1994. 8. 환경운동기금 마련을 위한 포항청소년영화제
- 1995. 2. 포항시가지 주변 산 되살리기 포항시민대책회의
- 1995. 5. 포항 지역민의 환경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1996. 9. 경북대동일보 공동 시민대토론회 “쓰레기소각로 포항에 타당인가?” 개최
- 1998. 11. 시민대토론회 “포항시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 개최
- 1999. 6. 경북케이블방송 공동 ‘포항광장21’ 방영
- 1999. 10. 세계NGO대회 홍보부스 참가
- 2001. 8. 《형산강》발간

- 2003. 4. 사단법인 설립
- 2008. 4. 포스코 창립 40주년 기념 포항시민 의식조사
- 2009. 6. 경북매일신문 공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북동해안 주민의식조사’
- 2009. 7. 《포항연구》통권 43호 발간

2) (사)동대해문화연구소

동대해문화연구소(東大海文化研究所)는 1994년 3월 4일, 환동해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문화 발전에 뜻을 두고 이에 관련된 사회 문화 현상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첫 해부터 연구논문집 《동대해문화연구》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1995년 이후 포항문화발전 학술심포지엄을 4회 개최하고, 시민문화대학 개강(문화유산해설사 과정 등 4과정)2회, 문화유적 지표조사집 발간 및 보고회 3회, 국내외 문화연수회 10회 등 포항시의 문화발전과 포항시민의 문화의식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2000년 12월에는 제5회 포항MBC 문화대상 단체 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구성원은 연구위원 43명, 이사 10명, 전문위 5명이다. 중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4. 3. 동대해문화연구소 창립 : 소장 배용일, 최무도 이사장, 연구위원 15명, 이사 8명(사무실 : 포항시 북구 덕산동 233-9)
- 1994. 11. 《동대해문화연구》창간호 발간
- 1995. 10. 통합 포항시 출범 및 제76회 전국소년체전기념 포항문화발전학술 심포지엄 개최
- 1996. 3. 사단법인 동대해문화연구소 승인 및 등기(제96-1호)
- 1996. 12. 포항시와 오천·대송·흥해읍 지역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체결
- 1999. 3. 제2대 이대공 이사장 및 이사 7명 위촉
- 1999. 10. 시승격 50주년기념, 제4회 포항문화발전 학술심포지엄 개최
- 2000. 12. 제5회 포항MBC 문화대상 단체 본상 수상
- 2002. 2. 제2대 김용우 소장 취임, 배용일 명예소장 추대
- 2002. 9. 3대 이석태 이사장 및 이사 18명 위촉
- 2003. 1. 사무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87-1로 이전
- 2003. 10. 제1기 <시민문화대학강좌> 개설(4과정)
- 2003. 10. 지표조사전문기관 지정, 문화재청 고시제 2003-59호
- 2004. 7. 포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지표조사 완료

- 2005. 3. 포항의 봉수대(7개소) 조사 완료
- 2005. 11. 사무실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7-16으로 이전
- 2006. 1. 포항 고인돌 현지 지표조사 완료
- 2008. 12. 《동대해문화연구》12집 발간

3) 포항예술문화연구소

1999년 7월에 창립된 포항예술문화연구소는 지역 예술지인《아트포럼》을 발간하며 포항예술·문화의 주요 현안들을 연구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1999년부터 지역문화를 형상화하는 예술축제 “포항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의 스승을 모시는 “스승모시기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특징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한 “두껍아 두껍아 헌집즐게 새집다오” 행사를 주관하였다. 21세기 지역문화를 여는 예술공동체를 표방하는 포항예술문화연구소는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장르간 교류를 통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지역문화와 예술의 정체성을 연구해 오고 있다.

- 1999. 7. 포항예술문화연구소 개소
- 1999. 2. “빛으로 미래로” 밀레니엄 해맞이예술제
- 2000. 2. 스승모시기 세미나 - 포항공대 박이문 교수
- 2000. 7. 바다사랑 모래축제 “두껍아 두껍아 헌집즐게 새집다오”
- 2001. 4. 스승모시기 세미나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차범석
- 2001. 10. “전시가 있는 공연, 공연이 있는 전시” 제2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2. 6. 시민과 함께 떠나는 광주비엔날레
- 2002. 12. “빛으로 미래로” 제3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3. 12. “빛으로 미래로” 제4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3. 11. 아트포럼 창간호 발간
- 2004. 9. “송도 그리고 동빈내항” 제5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4. 11. MBC 삼일문화대상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
- 2005. 5. 스승모시기 세미나 - 기청산식물원장 이삼우
- 2005. 9. 아트포럼 발간
- 2005. 11. “섬” 제6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5. 12. 국제와이즈맨 주최 문화예술부문 단체 봉사상 수상
- 2006. 11. “포항의 재발견” 제7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7. 10. 아트포럼 발간

- 2007. 11. “빛과 미래-바다” 제8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8. 10. “빛의 미래 철의 미래” 제9회 포항아트페스티벌
- 2008. 11. 아트포럼 발간
- 2009. 10. “소통” 제10회 포항아트페스티벌

4) 포항고문화연구회

포항고문화연구회는 고대 민족문화 및 전통의 이해와 연구, 고대 인접 국가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0년 11월에 창립된 향토문화연구단체다.

1989년 칠포리 암각화를 발견하여 국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이 단체는 월 1회 고적 답사와 년1회 해외답사, 년2회 문화재해설의 밤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1995년 1월에는 한국역사민속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암각화의 세계’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초창기 포항제철 직원의 동호인으로 출발하여 포철고문화연구회라는 명칭을 쓰다가 2003년 포항고문화연구회로 바꾸었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소식지 <古文化>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1990년 3월에는 그 동안의 활동성과를 정리한 <고성(古城)>(창립 10주년 기념호)을, 1994년에는 이하우, 한형철 회원이 칠포리 암각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한 <<칠포마을 바위그림>>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이광수(회장), 강호진(부회장), 안병국(기획국장), 김현석(자문위원), 이동기(총무실장), 김세중(홍보실장)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5) 포은문화연구회

포은 문화 연구회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인 포항(영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단체이다.

서울 포은학회의 포항지부를 설립하여 정식 회원단체로 자격을 취득하고 각종 학술 세미나, 유적지 탐방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은선생 유적지 문화해설을 지원하고, 지역 유적지 자료조사, 포은문화축제 자문 및 행사지원 등 포항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 2번째 인물선정 기념의 ‘포은 정몽주선생 학술세미나’ 개최, 포은문화 창간호 발간, 포항시립 포은도서관의 포은선생 흉상 봉안식 주관, 문충리 생가터 표지판 설치, 경기도 포은문화제 참여, 용인시 문화원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과의 상호 정보교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활동사업으로는 포항문화원 강의, 지역학교와 해병부대 인성교육, 포항시립 포은도서관 특강, 오천도서관 문화강좌, 인터넷 카페운영(전국 회원), 지역 가족 음악회 개최 및 주관, 전국 포은선생 발자취 탐방, 지역 유적지 문화해설 등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시 사회단체에 등록된 후 30여 명의 회원과 전국단위의 포은학회 포항시 지부로서 자문위원(김호암 오천서원 원장, 배용일 포항대학 초빙교수, 권창호 포항문화원 원장, 포항시립연극단 김삼일 상임연출,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정춘영 이사장, 반용부 신라대 명예교수), 단체위원(오천읍장, 지역 시의원, 오천청년회, 오천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 포항(영일)임을 “다시 찾은 포은 선생의 고향 오천” 책자를 발간, 전국에 알리기 시작하였고, 10여 년간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포은선생 관련 인사와 학계의 도움을 얻은 결과 포은선생의 고향이 포항임을 확인하고, 포항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에 수정을 요구, 포항(영일)으로 표기하였다.

현재 포항문화의 정신적 뿌리를 찾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충리 생가터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포항역사 및 포항문화 연구서 발간 현황

1) 일월향지

《일월향지(日月鄉誌)》는 1967년 포항로타리클럽 주관 일월향지편찬위원회(위원장 : 오실광)와 편찬 주간 박일천(朴一天)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책은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에 총 360쪽에 달하는 당시로는 방대한 분량으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지방지의 서술 형태를 근간으로 분류사적 역사 서술 형태가 가미되어 있으며, 내용은 크게 고사록(古史錄)과 인물록(人物錄)으로 나누어진다.

《일월향지》의 저자인 박일천은 제4대 포항시장과 초대 경북향토사연구협회회장직을 역임하였는데, 1960년대에 향토사가(鄕土史家)로서 갖는 자료 수집과 고증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집념과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이룩하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김용제(金鎔濟)의 《영일읍지(迎日邑誌)》 이래 실로 38년만에 만든 향토지로서 향후 향토사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포항시사(1987)

포항 지역의 향토사로서는 일제강점기의 《영일읍지》와 광복 후의 《일월향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그 서술 형태나 사료(史料)의 수집과 고증이 근대의 역사 서술 방식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새로운 향토사의 편찬이 요청되었다.

포항시는 영일군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토사는 영일군과 공동으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1982년 4월 포항시장·영일군수·포항문화원장 연석회의에서 포항문화원과 영일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발간하기로 하고, 그 해 9월 포항·영일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 부족과 시·군간의 협조 미비로 무산되어 한 동안 표류하게 되었다.

포항의 향토사 발간은 1986년에 발족된 포항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 이동진 포항시장)에 의해서 1987년 12월 《포항시사(浦項市史)》가 편찬됨으로써 실현되었다.

《포항시사》는 4.6배판에 총 903쪽으로 광복 이후 최초의 관찬(官撰) 사서(史書)로서 근대 역사서술의 기본이 된 시대구분에 의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서술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래의 지방지(地方誌) 서술형식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전설·인물 편을 수록하고 있다.

《포항시사》의 집필에는 박일천(전설·인물), 배용일(역사), 성홍근(정치·행정), 이대환(교육, 문화), 이상훈(자연환경), 이종순(문화·방송·문화기관·문화시설), 한영광(산업·경제) 등이 참여하였다.

3) 영일군사(1990)

《포항시사》의 편찬은 영일군사(迎日郡史) 발간에 자극을 주어 포항시의 모체인 영일군 향토사 편찬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영일군사》는 1987년 8월에 구성된 영일군사편찬위원회(위원장 : 김호동 영일군수, 편집위원장 : 이삼우 청하중 재단이사장)에 의해 착수되어 김재완 군수 재임시 1990년 11월 30일에 발간되었다.

《영일군사》는 4.6배판의 총 1,219쪽이며, 과거의 향토지적 서술방법에서 벗어나 시대구분에 따른 통사체(通史體)와 편년사체적(編年史體的) 서술방법을 채택하였다.

제1편 <고대사회>~제4편 <현대사회>까지를 근간으로 하되, 제5편에 <자연환경, 인물, 전설, 마을 유래와 현황>을 수록하는 새로운 형태의 향토사를 편집 서술 하였다.

3년여 동안 현존하는 모든 문헌자료를 섭렵하고, 문화유적과 유물의 현장답사 및 고로(古老)들의 신빙성 있는 전언(傳言)을 바탕으로 영일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독자적인 발전상을 인식코자 노력하였다.

《영일군사》의 집필에는 황인(고대~중세(고려)), 배용일(중세(조선전기)~근세), 손

수익(정치·행정), 한영광(산업·경제), 김일광(교육·종교), 박창원(문화), 백락구(명승고적), 이상훈(자연환경), 이희특(인물), 김삼일(인물-입향조), 금락두(전설), 이삼우(마을유래와 현황) 등이 참여하였다.

4) 포항시사(시승격50주년기념, 1999)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된 후 포항의 어제와 오늘을 한데 모아 집대성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오던 중 1999년 포항시는 시승격 5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통합 《포항시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포항시승격 50주년기념《浦項市史》편찬위원회(위원장 : 정장식 포항시장, 편집위원장 : 배용일 포항1대학 교수)가 발족되어 기존의 포항시사와 영일군사를 통합하는 한편, 1990년 이후의 역사를 보완하여 1999년 12월 15일에 4×6배판 하드카바 양장제본의 시승격50주년기념 《포항시사》상(860쪽)·하(823쪽) 2권을 포항삼양문화사에서 발간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지표조사(유물과 유적), 고전적(古典籍) 조사, 민속학적 조사에 의해 역사자료를 보완하고, 특히 《포항시사》발간 후의 12년과 《영일군사》발간 후의 9년간의 새로운 역사적 경험을 추가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전의 《포항시사》와 《영일군사》에 소홀히 취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지방의회·환경·사회복지·정보통신·주택·건축 등의 분야에 대한 자료정리에도 각별히 유념하였다.

《포항시사》 집필에는 황인(선사·고려), 김용우(고대국가·통일신라), 배용일(조선·근대·현대 반공투쟁과 6.25전쟁), 성홍근(현대 정치), 박문하(의회·정보통신·교통), 최원삼(행정), 한영광(산업·경제), 양만제(사회복지), 하영길(환경보전), 김일광(교육·체육), 신상률(예술), 박창원(종교·문화), 박이득(언론·출판), 백락구(명승고적), 이상훈(자연환경), 이희특(인물), 금낙두(남구 마을유래), 이삼우(북구 마을유래) 등이 참여하였다.

5) 포항시사(2009)

포항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포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오늘날 포항시의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포항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일류도시를 향한 글로벌 포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포항시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8년 4월 29일 포항시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박승호 포항시장, 집필위원장 : 배용일 포항대학 초빙교수)가 발족되었으며, 이때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에 권창호 포항문화원장, 편찬위원으로는 박문하 시의회의원, 홍필남 시의회의원, 배용일 포항대학 초빙교수, 박이득 포항예총회장, 이삼우 기청산식물원장, 김윤규 한동대학 교수, 한영광

포항대학 교수, 최인수 선린대학 교수, 남상수 포항유도회장, 금낙두 장기총효관 운영국장, 김용우 동대해문화연구소장, 안상찬 포항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위촉되었다.

시승격 50주년의 1999년 《포항시사》발간 10년 만에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 꿈과 희망의 일류도시, 대통령 배출의 글로벌 포항의 밝은 미래를 조망하는 《포항시사》 3권을 2009년 12월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제1권(天)에는 자연환경과 고대~근대편, 제2권(地)에는 현대의 정치·행정·사회복지·산업경제편·교육·종교, 제3권(人)에는 현대의 문화·체육·언론출판·문화유적과 문화유산·인물·마을유래·전설·부록편을 수록한다.

특히 고대 포항의 역사를 밝혀주는 국보급 ‘포항 중성리신라비’를 비롯하여 다수 조사 발굴된 새로운 문화유산, 고대로부터 관방요해처 주민으로서의 충절정신 및 근대 포항발전의 개척정신의 실상을 증보코자 하였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발전적인 갈등·화합·성찰과 민·관·산·학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기획된 미래 선진 첨단과학도시의 비전을 밝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해양문화관광도시를 가꾸어가는 힘찬 포항의 저력을 서술하여 후손들의 참고 지침서가 되는 데 큰 뜻을 두었다. 그리고 집필진을 48명으로 크게 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자랑스러운 향토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고, 포항 역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고 향토사랑 대중화의 역군으로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현판식

6) 포항문화 연구서 및 논문

(1) 연구논문

1970년까지만 해도 포항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연구자 성명 가나다순)

- 강호진 <영일 호동 폐고분군 조사 보고>《포항연구》창간호, 포항지역사회연구소, 1989, <영일읍성 조사 보고>, 《포항연구》3호, 1989
- 김갑수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한연구>《포항연구》38호, 2006
- 김영만 <냉수리신라비의 내용 고찰>《냉수리 신라비발굴 연구》(사)모산학술재단, 1989
- 김용우 <향토사 고대부분에 대한 연구와 인식방법에 대한 견해 >《포항연구》6, 1990, <영일만 주변의 고인돌 문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오어사 범종고>《동대해문화연구》2집, 1996, <포항의 고려범종>《동대해문화연구》5집, 1999, < 포항의 봉수대 > 《동대해문화연구》10 집, 2005
- 김윤규 <다산 장기 적거시의 배경과 성격 >-장기품물을 노래한 시들을 중심으로 - 《동대해문화연구》6집, 2000, <포항 고전문학사 시론>《포항문학》21, 포항문인협회, 2001
- 김준홍 <21세기 포항의 발전 전략과 미래상 > 시승격 5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포항의 어제 · 오늘 · 내일》, 포항시, 1999
- 김대엽 <포항 방언의 의문형 어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화숙 <소리춤 월월이청청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희준 <법광사지 > 《청람사학》5, 한국교원대학교청람사학회, 2002
- 남상의 <포항 · 영덕 지역의 월월이청청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박창원 <죽장 지계상여놀이 연구>《포항연구》9호, 1992, <포항지역의 노동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포항 덕성마을 동제 연구>《한국민속학보》9호, 한국민속학회, 1998, <포항 구진마을 전설과

얇은 줄다리기의 성격》《의재 최윤식박사 화갑기념논총》, 2002, <포항 지역 전설의 현상과 의미》《포항문화》24, 2004, <내연산 폭포주변 바위에 새겨진 인명 연구》《동대해문화연구》10, 2005, <흥해의 기인 권달삼 전설 연구》《동대해문화연구》11, 2007, <내연산 산령전마을 백계당 연구》《동대해문화연구》12, 2008), <포항지역 당신화의 전승양상》《포항문화》5, 포항문화원, 2009

- 배용일 <산남의진고(山南義陣考)》-정환직·정용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포항전문대학 논문집 6, 1982), <최세윤 의병장고》《사총(史叢)》31, 고려대학교, 1987, <산남의진고》《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5집, 한민족운동사연구회, 1991, <조선시대 경상도 동해안의 역제 연구》-송라찰방도를 중심으로-《사회경제논총》제2집, 포항전문대학, 1991, <포항·영일 행정구역 변천고》《동대해문화연구》창간호, (사)동대해문화연구소, 1994, <포항정신 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적 발전 방안》《지방화시대의 포항정신문화 창달과 지역민의 역할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포항청년회의소특우회, 1996, (《동대해문화연구》3집, 1997 수록), <포항정신은 무엇인가》-포항 정체성 시고- 《‘시승격 5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포항시, 1999 (《동대해문화연구》5집, 1999 수록), <조선후기 진흥창 포항창진 설폐고》《백산학보》제70호, 백산학회, 2004,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 연구-포항문화의 정체성 탐구와 브랜드화를 중심으로-> 제1회 포항정신문화발전 심포지엄 논문집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월사상》, 포항시, 2007(《포항연구》40호, 2007 수록),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발견경위와 고대의 포항과 흥해》포항중성리비발견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신발견 포항중성리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포항시, 2009 (《한국고대사연구》56집, 한국고대사학회, 2009 수록), <산남의진 세 대장의 거의정신과 행적의 특징》《산남의진 항일독립운동사 학술강연회 논문집》, (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2009
- 심재완 <냉수리 신라비의 발견경위와 서법고》《냉수리 신라비발굴 연구》, (사)모산학술재단, 1989
- 안수경 <사회기관에서 이루어진 역사교육강의 운영안 및 사례》-포항시를 중심으로-《동대해문화연구》9집, 2003
- 오승희 <건조 조건에 따른 콩치 과메기의 주요 성분 변화》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윤은정 <포항시 초기 도시형성에 포항창·포항진이 미친 영향》《동대해문화연구》7집, 2001

- 이민홍 <우암의 장기 유배생활 실상과 저작활동>《한국한문학연구》27집, 2001,
<우암 송시열의 장기 유배생활>《포항·장기현과 우암 송시열》송우암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회, 포항시, 2007
- 이삼우 <겸재 정선의 이 고장에서의 발자취>《관송》 4호, 청하중학교, 1995
- 이상준 <포은 정몽주의 포항(영일) 출생설에 대한 소고>, 《포은문화》(창간호),
포은문화연구회, 2008
- 이상훈 <포항지역의 화석에 관한 연구>《대한지구학회지》, 1982, <영일만 내의
해저퇴적물에 대한 고찰>《해양학회지》, 1989, <포항분지 제3기층의 생성과
고환경에 대한 연구>《대한지질학회 논문집 추계학술논문 발표논문집》
5권-4호, 1995
- 이영희 <연오랑은 누구인가>《경북대동일보》1998. 10. 29, <세오녀는 누구인가>
《경북대동일보》1944호, 1998. 11 12, <형산강은 사철을 캐던 무쇠의 강>
《경북대동일보》1999. 6. 10
- 이정옥 <연오랑 세오녀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제1회 포항정신문화발전 심포지엄
논문집《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월사상》, 포항시, 2007
- 이하우 <한국 검파형암각화의 양식변화와 기능성 변형>(《대가야학술총서》6호,
한국암각학회, 2009)
- 이호진 <포장재 및 저장형태, 온도 기간의 콩치과메기의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훈도 <광복 후 야학 교육 활동 연구>-포항시를 중심으로 - 《동대해문화연구》
창간호, 1994, <포항지역 사회교육의 구조와 교육적 적절성에 관한 연구>
《동대해문화연구》5집, 1999
- 장성일 <포항·영일지역 통합에 따른 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동대해문화
연구》창간호, 1994
- 정주영 <포항과 우암 송시열 선생>《포항·장기현과 우암 송시열》, 송우암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회, 포항시, 2007
- 정창조 <연오랑 세오녀 설화 고찰>, 《동대해문화연구》3집, 1997
- 한영광 <포항지역 재래시장의 사적 고찰>《논문집》제12집, 포항전문대학, 1987,
한영광 외<죽도시장 활성화 종합계획>《동대해문화연구》7집, 2001
- 홍육헌 <시민의식을 통해 본 포항시 발전역량> 시승격 5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포항의 어제·오늘·내일》, 포항시, 1999
- 황 인 <장기목장성과 흥인군의 비석에 대하여>《일월》창간호, 포항동해중, 1998

(2) 향토문화 관련 단행본 간행물

- 《동해명감(東海名鑑)》(영남일보 동해지사, 1955),
 《내 고장 전통 가꾸기》(영일군, 1981),
 《국역수월재선생일고(國譯水月齋先生逸稿)》(수월재선생사적선양회, 1989),
 《포항의 역사와 전통》(배용일·박이득, 포항시, 1990),
 《장기읍성 지표조사보고서》(영일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1)
 《노래하는 역사》(이영희, 조선일보사, 1994)
 《칠포마을 바위그림》(이하우·한형철, 포철고문화연구회, 1994),
 《영일만 지역 고인돌문화 연구》(배용일·김용우, 영일문화원, 1994),
 《포항지역의 취락》(이상훈, 연일단위농업협동조합, 1995),
 《향교의 맥》(청하면, 1996),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사)동대해문화연구소, 포항시, 1997)
 《문화재편람》(포항시, 1997),
 《포항일월지(浦項日月池)》(대구대학교박물관, 포항시, 1999)
 《포항의 어제·오늘·내일》(동대해문화연구소·신경복일보사, 포항시, 1999)
 《포항지역 구전민요》(박창원, 포항문화원, 1999)
 《국역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포항문화원, 1999)
 《포항의 자연과 지리》(이상훈, 포항삼양문화사, 2001)
 《다산 정약용의 포항 유배시가》(김윤규, 포항문화원, 2001)
 《포항 마을의 유래와 전설》(포항문화원, 2002)
 《잃어버린 신화 바위그림 이야기》(이하우, 민속원, 2003)
 《한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이대환 외, 포항지역사회연구소, 2003)
 《국역 읍지(邑誌)》(권태한 외, 포항문화원, 2003)
 《해맞이의 성지 포항, 호미곶》(편장섭 편저, 포항시, 2004)
 《장기 향토사》(이상훈 지음, 장기향토편찬위원회, 2005)
 《포항 칠포리 암각화의 세계》(포항문화원·한국암각학회, 2005)
 《포항의 봉수대》(사단법인 동대해문화연구소, 포항시, 2005)
 《포항역사의 탐구》(배용일, 포항1대학, 2006)
 《장기고을 장기사람 이야기》(이상준, 장기발전연구회, 2006)
 《대보면 향토사》(이명덕 편저, 대보면향토사편찬위원회, 2006)
 《포항에 뿌리박힌 포은의 발자취》(이상준, 포항시, 2007)
 《아름다운 포항 유서깊은 마을》(배용일 외,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 포항시,
 2007)

- 《포항 중성리신라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신발견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
· 한국고대사학회, 포항시, 2009)
《무쇠를 가진자, 권력을 잡다》(이영희, 현암사, 2009)

3. 포항문화의 정체성

1) 포항문화의 브랜드화 및 세계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포항시가 지향하는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더불어 발전하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문화도시 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임을 인식하여 포항시에서 ‘문화도시포항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3월 9일 시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자문위원은 박승호(위원장, 포항시장)·김규식·한명희·강학중·김종득·권창호·송수웅·김중동·조남윤·김공가·김규만·고정휴·장규열·정창조·김민근·홍광표·이형우·임재찬·이영희·서병철·이은숙·배용수·황기석·김유복·조인호·김삼일·김갑수·배용일·황인·최규열 등 30인으로 구성하였고, 포항정신문화 계승발전 추진, 문화도시 포항건설 인프라 조성, 우리지역 고유문화 복원 및 전승사업추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주제로 포항문화의 브랜드화 및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포항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4대 포항정신문화의 분야별 고찰 및 연구발전을 추진하고,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정신문화의 이론과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포항상징 조형물 건립 추진, 포항을 빛낸 인물선정, 북구 신광면 마북리 644번지(검등골) 일원을 ‘해월 최시형 유허지’로 성역화와 역사유적지로 지정, 유허지 정비, 학술용역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포항시는 2007년 3월 13일 포항의 문화제 명칭을 ‘영일만축제’에서 ‘일월문화제(日月文化祭)’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문화도시 포항 건설의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북구 환호동 환호해맞이공원 내에 포항시립미술관을 건립하였다. 미술관은 5,241㎡의 지하1층, 지상2층, 별관2동 건물로 2009년 12월에 개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새천년기념관을 2009년 12월에 개관하였다. 그 밖에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열람석 2,500석 규모

의 중앙도서관(가칭) 건립을 계획 중이며, 구 포항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포은도서관을 만들었다.

또한 포항문화예술회관을 2006년 29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하였으며,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대지 12,400평 건평 4,500여평)이 2010년 준공 예정이다.

2) 포항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영일만 르네상스 창출

2007년 4월 10일에 발족한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 박승호 포항시장)는 포항정신문화의 근간을 광명정신, 개척정신, 호국정신, 근대화정신의 네 가지로 요약 규정하였다. 광명정신은《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 연구> 논문에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연오랑 세오녀 신화’로 명명하여 일월신화가 포항정신문화의 뿌리라는 이론적 근거가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뿐 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포항은 한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호미곶은 새 천년 한민족해맞이축전의 국가행사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포항의 지명에서도 영일만, 일월지 등 일월존중의 광명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해와 달, 빛의 정신은 포항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일월의 고장 포항지역은 중세를 전후하여 신라 수도 경주의 인접 배후지로서 오어사·보경사·법광사 등의 유명 사찰과 진각국사 배천희로 대표되는 광명의 불교문화를 이루었다.

나아가 조선후기 포항의 근대화정신은 정약용의 실학사상, 최시형의 동학사상 등이 뒷받침한다. 동학사상은 인내천의 인간존중 사상이며,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가치추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상으로 최시형이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에서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1801년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유배되어 거주하면서 합리주의 정신,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전통적 사회체제인 봉건제도의 붕괴를 이끌어낸 이러한 사상이 포항에서 태동되었으니 근대화정신이 포항문화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개척·화합정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영조7년(1731년)에 북관(함경도 지방)의 기민구제를 위한 관창(官倉)인 포항창진(浦項倉鎭)을 설치하여 오늘날 포항도심의 오도(五島)가 개척되고 전국적인 해운 요지와 상권 중심지로 부상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1970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설립된 포스코가 건설되어 국가와 향토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신항만 건설로 국가 물류 발전에 기여하는 등으로 포항 특유의 개척정신이 구현되어 왔다.

호국정신이 포항정신의 뿌리 중 하나됨은 포항지역이 고대로부터 관방지역으로서의 의병정신과 정몽주 의리정신의 유품인 충절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과제를 극복한 사실로 뒷받침 된다.

신라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청하면 월포리 등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흥해에 미질부성·영일에 고현성·장기성 등을 건설하여 신라의 수도와 동해안을 방어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말에는 두호동에 해군기지인 ‘통양포수군만호진’을 설치하고, 조선시대에는 영일진을 설치하였다. 6.25전쟁 때는 최후의 전선인 포항-안강 방어전투에 학도의용군이 참전하여 끝까지 항전하였으며, 현재는 해병 제1사단, 해군 6항공전단 등이 주둔하여 호국정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문화의 정체성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항정신문화의 계승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0일 포항시청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포항정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21세기 CT(Culture Technology) 시대에 대비한 역량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박승호 시장, 부위원장 배용일 교수, 위원 이영희·김삼일·이희특·김용우·황 인·박창원·강호진·안수경·이동덕·김영규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10월 8일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연오랑 세오녀 일월사상(일월정신)의 창조적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한 ‘제1회 포항정신문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 연구 - 포항문화 정체성의 탐구와 브랜드화를 중심으로>(배용일 포항대학 초빙교수)와 <연오랑 세오녀의 문화콘텐츠화 전략>(이정옥 위덕대학 교수) 논문을 발표하여 연오랑 세오녀가 실존인물임을 밝히고, 포항문화 정체성 뿌리의 이론적 근거를 지리적·역사적 배경 및 신화적 구조를 통해 구명하고, 이를 현대문화 콘텐츠(브랜드)화를 제안하여 포항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미래화를 조명하는 학문적 탐구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7~8일 양일간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신발견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신라사에 있어서 포항 지역의 역할에 대한 관심고조와 포항의 역사·문화의 특성 탐구의 큰 길잡이가 되었다. 이어서 2009년 12월 7일 연오랑세오녀연구소(《경북일보》 부설)가 설립되었다.

바야흐로 포항은 시승격 60주년에 향토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더불어 그 잠재력을 미래화 하는 폭넓은 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영일만 르네상스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5절 일월문화제

1. 형산문화제(구 포항시)

구 포항시의 문화제는 1966년 6월 12일 포항이 국제 개항장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그해 7월 제1회 포항개항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미술실기, 한글백일장, 음악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 등의 학생행사와 음악, 연극공연, 사진전시 등의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개항제는 1971년 제6회 때는 동해문화제로 그 이름을 바꾸어 개최한 후 중단(1972~1982)되었으며, 1983년 제7회부터 포항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포항문화원에서 주최하였고, 1984년 제8회부터는 형산강의 이름을 딴 형산문화제로 바꾸었다. 제10회 행사부터 주최기관이 문화원에서 포항시로 바뀜에 따라 문화제 행사 중 전통문화분야는 포항문화원에서, 문화예술분야는 예총포항지부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1992년 제16회부터는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1993년 10월 22~28일에 열렸던 제17회 형산문화제의 경우 공개 행사로 농악, 부채춤, 에어로빅, 치어걸댄싱쇼, 해병의장대시범, 월월이청청, 기계체조 등 7가지, 전통민속행사로 민속경기(3종목), 국악놀이한마당, 전통음식시음, 노래자랑, 영일만수신제, 영남한시백일장 등 6가지, 문화예술행사로 서울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형산음악회(포항소년소녀합창단, 포항어머니합창단, 아가페합창단, 중앙고등학교 관악대, 포철 중창단), 연극공연(연극협회), 무용공연, 연극공연(포철), 시민가요경연대회, 시립교향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국제교류음악회, 문학강연회 등 10가지, 경연대회로 학생미술실기대회, 형산백일장, 학생서예실기대회, 궁도대회, 형산음악콩쿨 등 5가지, 전시회로 분재전시회, 제5회 전국사신공모전, 영일만 여성서예대전, 미술전시회, 수석전시회, 서예전 등 6가지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형산문화제는 1994년 한 발로 인해 제18회 행사를 열지 못한 채 1995년 포항시·영일군의 행정 통합에 이은 문화제 행사의 통합에 따라 제17회(1993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 일월문화제(구 영일군)

구 영일군에 첫 문화제가 열린 것은 1964년 10월이다. 전 영일군수 서상은씨가 영일군 공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군민들을 설득, 독려하고 유지들을 찾아 협조를

구하여 제1회 보경문화제를 열었다. 보경사에서 열린 이 행사는 농악경연대회에 그쳤으나 문화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듬해인 1965년 제2회부터는 농악, 씨름, 그네뛰기, 윷놀이, 한글 백일장, 한시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군행정실적 전시 등으로 종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보경문화제는 제3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서상은씨가 영일군수로 다시 부임해 오면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보경문화제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행사의 주관은 영일문화원이 맡고 15개 종목의 부대행사를 보경사와 흥해읍 일원에서 치렀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제 명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결국 ‘보경문화제’ 대신,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삼아 일월문화제로 명칭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근면·성실의 영일인상(迎日人像)을 표방한 것이다.

그래서 1983년 제5회 일월문화제 때부터는 전야행사로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를 열고, 1985년 제7회 때부터는 일월신제(日月神祭)를 지내는 등 종목이 다양해졌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제8회(1986년) 이후 격년제로 열게 되었다.

일월문화제는 1994년 한발로 인해 제12회 행사를 열지 못한 채, 포항시·영일군의 행정 통합으로 인해 제11회(1992년)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 1988년 10월 29~30일에 열렸던 제9회의 일월문화제의 경우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 군민가요열창, 일월신제, 전통혼례식, 농악시범, 윷놀이, 널뛰기, 씨름, 팔씨름, 노인경기, 모포큰줄다리기, 궁도, 축구, 마라톤, 협동달리기, 사과먹기경기, 육상, 해병의장대시범, 에어로빅시범, 전통음식판매, 풍년막걸리잔치, 특산물나누어먹기, 백일장, 보경대법회 등의 행사를 벌였다.

3. 영일만축제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74호에 의해 (구)포항시와 (구)영일군이 통합되어 통합포항시가 출범함에 따라 자연히 문화제 행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종전의 형산문화제와 일월문화제를 통합하여 운영키로 하고, 문화제 명칭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기존의 형산문화제나 일월문화제라는 명칭 대신 절충안으로 제시된 ‘영일만축제’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10월에 제1회 영일만축제가 열렸고, 1997년에 제2회가 개최되었다. 1998년에는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제 한파로 열리지 못했으며, 1999년 제3회가 열렸다.

4. 일월문화제

1995년 통합 포항시의 축제명을 포항시와 영일군의 절충안으로 영일만축제로 개칭 하였으나 점차 포항문화의 뿌리로서 연오랑 세오녀의 일월에 대한 전통성과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박승호 시장 취임 후 2007년 3월9일 ‘문화도시 포항추진 자문위원회’에서 포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일월문화제로 개칭하게 되었다. 제7회 포항문화행사가 일월문화제로 개칭 명명된 것을 기념하여 “제1회 포항정신문화학술심포지엄<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월사상>”을 2007년 10월 8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 주관, 포항시 주최) 일월문화제 명칭 개칭의 의미와 그 상징성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1)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연오랑 세오녀> 신화는 오랜 세월동안 포항지방의 역사적 뿌리 구실을 해 왔다. 이 신화에 나오는 연오랑과 세오녀는 해와 달로 상징되어 이 고장 역사의 출발 이념이었으며, 포항을 예로부터 일월향(日月之鄉)으로 부르는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바닷가에서 해조(海藻)를 따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연오랑과 세오녀는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근면·성실의 영일인상(迎日人像)을 대변해 왔다. 이처럼 <연오랑 세오녀> 신화는 이 고장 정신문화의 바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983년 영일군에서는 기존의 보경문화제(寶鏡文化祭)를 대신할 문화제 명칭으로 역사적 전통성과 지역적 상징성이 강한 일월문화제(日月文化祭)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근면·성실한 영일인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이해 제1회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를 열기에 이른 것이다.

일월문화제 문화행사의 하나로 열린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는 제1회부터 마지막 일월문화제가 열렸던 1992년 제6회 대회까지 영일문화원에서 주관해 오다가, 형산문화제와 일월문화제가 영일만축제로 통합된 1995년부터는 포항문화원에서 주관해오고 있다.

연오랑 세오녀는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부부가 참가하여 현지 실사(實査)와 대회에서의 심사(예절, 맵시, 장기, 인터뷰)를 거쳐 선발되는데,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참가 부부수가 크게 늘어나자 1996년(8회)부터는 두 부부(8~9회 : 해 부부·달 부부, 10회 이후 : 연오랑 세오녀 부부·준 연오랑 세오녀 부부)를 뽑고 있다.

역대 연오랑·세오녀 명단

구 분	연 도	이 름	출신 지역
제1대	1983	오성진·박취자 부부	신 광 면
제2대	1984	정해권·정경애 부부	구 룡 포 읍
제3대	1986	안수민·김창숙 부부	동 해 면
제4대	1988	이정호·이경화 부부	흥 해 읍
제5대	1990	원수연·여수임 부부	기 계 면
제6대	1992	박도영·배미옥 부부	흥 해 읍
제7대	1995	김주락·성영숙 부부	기 계 면
제8대	1996	이종면·김경희 부부(해 부부) 오동주·김점선 부부(달 부부)	흥 해 읍 동 해 면
제9대	1997	김태현·조은희 부부(해 부부) 장철호·정영미 부부(달 부부)	죽 장 면 죽 도 2 동
제10대	1999	신동환·이경미 부부(연오랑·세오녀) 변향우·심지현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용 흥 동 기 북 면
제11대	2000	이흥재·허승숙 부부(연오랑·세오녀) 남창학·윤순애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죽 도 2 동 기 계 면
제12대	2001	한익희·황윤희 부부(연오랑·세오녀) 김철열·윤순미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용 흥 동 흥 해 읍
제13대	2003	임경택·임수정 부부(연오랑·세오녀) 김광철·이정미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연 일 읍 흥 해 읍
제14대	2005	최만택·장태준 부부(연오랑·세오녀) 이세형·이광화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우 창 동 오 천 읍
제15대	2007	이재우·임정숙 부부(연오랑·세오녀) 조재현·김인자 부부(준 연오랑·세오녀)	환 호 동 청 립 동

선발된 연오랑 세오녀는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 사절로서 대내외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매년 10월 일월사당(日月祠堂)에서 열리는 일월신제(日月神祭)에 참여한다.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특산물 축제 행사의 하나로 미인을 뽑는 ‘○○아가씨 선발대회’와는 달리 한 쌍의 부부를 뽑고, 또 근면·성실한 모범 생활인을 뽑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항이 일월의 고장임을 인식시키는 한편, 축하 공연, 역대 입상자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곁들임으로써, 이 행사를 고유의 전통 문화 행사로 정착시키기는 물론 독특한 축제 형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2) 연오랑·세오녀상 건립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앞두고 포항이 첨단과학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포항의 역사 문화적 전통과 지역의 특성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삼국유사》에 실려 오랫동안 전해져 ‘포항정신’의 바탕이 되어 온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형상화한 조형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호미곶 새천년기념공원 조성과 연계하였다.

이 상징물의 건립은 1999년 7월 12일 연오랑 세오녀상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 배용일, 간사 : 박문하, 위원 : 신상률·이길생·황복희·유승광·최인수, 자문위원 : 김택규·이영희·강우방, 조각 : 강대철)가 구성되어 그 형상·크기·위치 등이 결정, 추진되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17일 신현웅(새천년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의근(경북도지사), 정장식(포항시장) 이상득이병석(국회의원), 장성호(도의회의장), 박태식(포항시의회의장), 이길생(포항문화원장) 등 포항시 내외의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 상은 황대봉 대아그룹회장(전 국회의원)이 건립비용의 전액을 회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언론들은 ‘향토기업가로 입지를 세운 황회장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포항문화의 정체성 정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은 높이 8m, 기단넓이 15m 규모의 대형 조형물로, 3m 높이의 청동 연오랑과 세오녀가 반갑게 만나기 직전의 형상이다.

제6절 각종 축제와 연례행사

1. 한민족해맞이축전

호미곶은 15세기 동국여지승람에 해맞이의 고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말 역사가 최남선의 조선상식 지리편에서도 조선십경에 호미곶을 최고의 일출장소로 꼽고 있다. 호미곶은 한반도 육지의 최동단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해맞이의 고장이다.

포항시는 2000년 새천년의 해를 맞이하는 국가적인 행사인 한민족해맞이축전을 호미곶에 유치하기 위하여, 정장식 시장과 황대봉 회장이 청와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를

방문하여 영일만 해맞이의 역사성과 과학성을 내세워 그 결실을 보았으며, 더불어 1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1999~2000년 호미곶광장 조성과 더불어 영원의 불, 상생의 손, 연오랑세오녀상 등을 건립하여, 국가적인 새천년 일출행사를 거행함으로써 포함은 우리나라 해맞이의 성지로 더욱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매년 해맞이 행사와 축하 퍼포먼스를 펼쳐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수	연도	이슈내용	관람객	예산(백만원)	비고
1	1999	· 호미곶 최초 해맞이축제 · 호미곶까지 여객선 임시운항	5000명	26 (시비)	
2	2000	· 호미곶 새천년 첫 햇빛채화 · 새천년 영원의 불 합화 및 보존 · 대통령 새천년 메시지 · 천국7대 종교지도자 평화 메시지	10만명	450 (시비400, 국비50)	
3	2001	· 대통령 새해 메시지 · 새천년 영원의 불 합화재연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팬 싸인회	10만명	150	
4	2002	· 전국 최대 축구공 제작(4m) ~2002월드컵 성공기원 싸인볼 · 2002명 관내 초등학교 그림을 ~우리민족 고유 연으로 제작,시연	20만명	100	
5	2003	· 호미곶 선포행사 ~서울대공원 호랑이 남매 출연 · 5색 물기둥 쇼 ~2003대구하계U대회 성공기원	20만명	100	
6	2004	· 전국최대의 가마솥 제작 · 1만명분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 · 호미곶 영호남 신랑신부 결혼식 · KBS Sunrise 콘서트 생방송	20만명	230 (도비80, 시비150)	
7	2005	· 1만명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 · 포항MBC 해오름 콘서트 · 전국특산품 홍보대사 패션쇼	20만명	230 (도비80, 시비150)	
8	2006	· 세계최대 태극기 제작 · 1만명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	25만명	130 (도비30, 시비100)	
9	2007	· 루미나리에, 과메기 홍보탑 설치 · 1만명 떡국 만들기 체험행사	30만명	130 (도비30, 시비100)	
10	2008	· 세계최대 삼죽오연 날리기 · 스틸러스 팬사랑 싸인회 · 과메기 홍보탑 퍼포먼스	20만명	130 (도비30, 시비100)	
11	2009	· 호랑이 조형물 및 군상 설치 · 시승격 60년 기념행사 · 시승격 60년기 부양 퍼포먼스	20만명	160 (도비30, 시비130)	

2. 포항국제불빛축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포항 영일만에 포스코(당시 포항종합제철)가 세워짐으로써 포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영일만 신화를 창조해 냈다. 2004년 포스코는 이러한 성공신화를 함께 한 포항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매년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의 정체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포항불빛축제를 개최하였다.

특히 포항시는 연오랑 세오녀 신화에서부터 영일만의 일출, POSCO, 방사광가속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빛, 자연의 빛, 과학의 빛이 함께 어우러진 일월 신화의 고장이다. 이런 빛 문화의 전통을 축제화한 것이 포항불빛축제이다. 지난 2007(제4회)년부터는 포항불빛축제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름휴가와 연관 지어 축제의 규모와 기간을 연장 하였다.

불빛축제는 2007년도 경상북도 200여 축제 중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는 등 확대, 발전되었으나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제6회 불빛축제에서는 기간을 이틀간으로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투입하였다.

회수	연도	이슈내용	관람객	연회규모	예산(백만원)
1	2004	· 포항시민의 날 기념 개최 · 시민노래자랑, 콘서트 등 · 한국단독 불빛쇼	50만명	7만5천발	포스코1350
2	2005	· 한중일 3개국불꽃쇼로 국제행사 · 뮤직을 가미한 불꽃쇼 시도	65만명	8만발	포스코1350
3	2006	· 한중일, 스웨덴 연화 참여 · 체험행사 확대	71만명	8만발	포스코1350
4	2007	· 일일축제에서 9일간 축제개최 · 4개국 6팀 불꽃행사 · 해병문화축제, 바다음식축제 등 통합 · 첫 퍼레이드행사 개최	191만명	8만5천발	1725 (포스코1350, 도비115, 시비260)
5	2008	· 5개국 6팀 불꽃행사 · 유료좌석제 등 축제마케팅전략 · 8일간 축제계최	200만명	10만발	1580 (포스코1000, 도비60, 시비560)
6	2009	· 시승격 60주년 행사 통합추진 · 양일간 집중 개최 · 퍼레이드 부문 대폭 확대	100만명	4만5천발	1280 (포스코800, 도비40, 시비440)

3.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2001년 극단은하 대표 백진기에 의해 기획된 포항바다연극제로 처음 시작되었다. 2·3회를 거치면서 연극제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그간의 성과가 인정되어 2004년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연극제로 거듭났다. 2004년 임의단체로 운영해 오던 포항바다국제연극제를 사단법인체로 전환하여 조직을 체계화했다.

초대이사장에 언론인 출신 포항MBC시네마 대표이사 권오신을 추대했고, 2008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병석이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사에는 백진기, 김용우, 김갑수, 신계호, 박현진, 정송영이 유입되고 주관을 맡은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에 백진기, 사무국장에는 하지희가 임명되었다. 2009년도에는 셰익스피어 연극제를 개최하였고, 문광부 축제평가에서 상위로 평가받았다.

4. 단오민속축제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문화원이 주관하는 포항단오절민속축제는 농촌 자연부락 단위로 이어져 오던 세시풍속놀이를 1995년 구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기념으로 주민화합 도모 및 전통 민속 계승차원에서 1996년부터 제1회를 시작하여 올해 14회째 연례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포항시 29개 읍면동별 대표와 포항문화원 문화반 문화가족 4개팀 대표들로 구성하여 참가퍼포먼스경연대회, 그네뛰기대회, 여성한복맵시대회, 윷놀이대회, 투호놀이대회 경기를 시행한다. 그 외에도 부대행사로 창포탕 머리감기, 떡메치기, 단오빔(천공꽃기), 문화원 풍물단 공연, 고전무용·민요공연, 월월이청청 놀이 공연, 단오선 나누어 주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이 있다.

5. 포항아트페스티벌

포항아트페스티벌은 2000년 한민족해맞이축전을 기념하여 지역예술가들이 지역문화와 예술의 뿌리를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영일만의 자연으로써의 빛, 포스코·방사광가속기의 자연과학으로써의 빛, 연오랑세오녀의 전통 신화로써의 빛, 21세기 문화예술의 빛에서 포항의 아이덴티티를 빛으로 규정하고 ‘빛으로 미래로’를 페스티벌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포항아트페스

티밭은 예술 장르의 구분을 뛰어넘어 지역의 문화인자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올해로 10회째 맞이하는 순수예술축제이다.

6. 특산물 관련 행사

1) 과메기 축제

포항의 겨울은 콩치과메기와 함께 시작된다. 과메기는 본래 청어과메기로 오랫동안 우리지역에서 각광을 받아온 건강식품이자 지역 특산물이다. 우리지역의 전통 먹거리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겨울철 별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과메기를 지역 특산품으로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과메기의 소비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포항 과메기 축제’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부해수욕장 특설매장에서 열려 왔으며, 2005년부터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과메기 홍보 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98년부터 과메기와 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 주산지인 구룡포를 알리기 위해 구룡포 지역특산품축제가 구룡포 활어위판장을 비롯한 구룡포읍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구룡포읍 한얼향우회, 구룡포 청년 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주최하는 구룡포 해산물 축제는 구룡포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과메기, 오징어, 대게의 명성을 되찾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노력으로 2007년 포항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지정과 함께 포항의 전통식품 과메기는 21세기 지역경제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 장기 산딸기축제

제1회 장기산딸기축제는 장기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8년 6월 8일에 장기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장기읍성과 양포항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끼고 지역 특산품인 산딸기를 주제로 문화공연과 먹거리 시식회, 각종 전통행사와 할인판매행사를 치렀다. 2009년에는 6월에 열렸으며 약 15,000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3) 하옥 단풍축제

죽장 하옥리 일대에 자생하는 참나무 군락지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제1회 죽장하옥참나무단풍축제는 죽장, 상·하옥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 11월 3일 죽장면 하옥리 포항학생야영장에서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산행과 먹거리 장터, 산사음악회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주요내용으로 약 2,000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나 기존의 내연산 음악회 등 유사행사에 밀려 1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밖에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축제로 기북산나물 축제와 죽장고로쇠 축제가 있다.

7. 기 타

1) 이팝축제

흥해 향교산에는 1975년 경상북도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다. 1991년 흥해 이팝청년회가 조직되어 이팝나무 꽃이 만발한 매년 5월초 이곳에서 이팝축제를 연다. 2009년 19회째를 맞이한 이팝축제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견실한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2) 부학축제

부학축제는 1999년부터 부학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여 양학동 생활체육운동장에서 노래자랑 등 동민화합행사로 열려왔다.

3) 호미(虎尾)곶 예술축제

호미곶예술축제는 영일호미수회의 주관으로 2009년 4월 호미곶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연오랑 세오녀 추모제, 한흑구 선생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한글백일장, 미술사생대회 등이 열렸다.

제7절 포항시의 문화·예술 사업

1. 시승격 기념사업

1) 50주년 기념사업

1999년은 영일군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되어 분리 독립하였다가,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46년 만에 다시 통합된 후 맞이하는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 해이다. 시로 승격된 지 50년 만에 포항은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임해공업과 농수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구 52만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포항시에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자랑스런 뿌리를 찾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한편,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담기 위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신상률, 부위원장 : 이길생, 배용일)를 1998년 11월 18일에 구성했으며, 199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은 “포항 50년, 희망찬 새포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걸고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기획사업 13개, 문화예술행사 7개, 체육행사 7개 등 모두 27개의 사업을 벌였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명	기간	장소	주관처
포항스틸러스개막경기	1999. 4. 3	종합경기장	포항프로축구단
제37회 도민체육대회	1999. 5. 18 ~ 21	종합경기장	포항시체육회
전통예절시연 및 다향제	1999. 5. 18 ~ 21	문화예술회관	포항차인회
포항장미축제	1999. 5. 29	문화예술회관	포항청년회의소
단오절민속축제	1999. 6. 19	보경사야영장	포항문화원
인터넷정보사냥대회	1999. 6. 22 ~ 26	선린대학	코넷동호인회
영호남장애인작품전시회	1999. 6. 24 ~ 30	문화예술회관	장애인연합회
연오랑·세오녀상징물건립	1999. 6. 27 ~ 11. 30	새천년기념공원	상징물건립소위원회
제2회 포항시여성문화제	1999. 7. 1 ~ 7	시내일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명	기간	장소	주관처
제8회 전국원드서핑대회	1999. 7. 23 ~ 25	북부해수욕장	원 드 서 핑 협 회
1999 해 변 축 제	1999. 7. 23 ~ 25	송도해수욕장	신 경 북 일 보
철 인 3 종 경 기	1999. 7. 24	북부해수욕장	해병9118부대, 시체육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1999. 7. 31 ~ 8. 1	철포해수욕장	패 러 글 라 이 디ング 협 회
포항, 포항인 여론조사	1999. 8 ~ 10		포 항 M B C
K B S 열 린 음 악 회	1999. 9. 11	종합경기장	포 항 제 철
1999 포항장사씨름대회	1999. 9. 24 ~ 27	실내체육관	향토청년회, 포항씨름협회
영일만이야기 기획전	1999. 10. 2 ~ 31	종합경기장	포 항 M B C
제3회 영일만축제	1999. 10. 3 ~ 9	시내 일원	예충포항지부, 포항문화원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1999. 10. 3	종합경기장	포 항 시
제3회 시민체육대회	1999. 10. 3	종합경기장	포 항 시 체 육 회
포항시민상 시상	1999. 10. 3	종합경기장	포 항 시
자매도시문화교류행사	1999. 10. 3		예 충 포 항 지 부
해외구매단초청수출상담	1999. 10. 3		포 항 상 공 회 의 소
우수농산물직판행사	1999. 10. 3 ~ 9	종합경기장	농업경영인연합회
포항문화발전심포지움	1999. 10. 7	문화예술회관	동대해문화연구소, 신경북일보
M B C 마 당 놀 이	1999. 10. 10	실내체육관	포 항 M B C
의정관련학술심포지움	1999. 10	문화예술회관	동국대지역정책연구소
포항시사발간기념회	1999. 12. 15		포 항 시 사 편 찬 위 원 회
포항과매기축제	1999. 12	북부해수욕장	경 북 매 일 신 문

2) 60주년 기념사업

동양문화권에서 60년의 의미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주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2009년의 포항은 지난 역사의 구비를 돌아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양수산도시에서 세계적인 철강산업도시를 일군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포항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New Start 2009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꿈”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2008년 12월 7일 시승격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용주,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장 : 박이득)를 구성하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펼쳤다.

2009년 1월 1일 새로운 포항시대 선언을 필두로 포항9경 선정, 포항시상징물 (CI) 변경 및 재디자인,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 포항소재문학작품공모전, 60주년 기념행사, 《포항시사》 편찬, 「60년 포항」 다큐멘터리 제작, 포항의 역사와 현주소를 타임캡슐에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타임캡슐 사업 등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시민역량 결집 및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펼쳤다. 구체적 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연번	사 업 명	추진기한	비고
1	새로운 포항 시대 선언	2009. 1. 1	기 획 예 산 과
2	해병문화축제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2009. 4. 17 ~ 4. 19	해 병 대 사 령 부
3	대북 제작	2009. 5. 30	문 화 관 광 과
4	「사이버 시민」홈페이지 구축	2008. 8. 15	정 보 통 신 과
5	상징물(CI) 변경 및 재디자인	2009. 8. 15	기 획 예 산 · 자치행정과
6	포항 12경 선정	2009. 8. 15	문 화 관 광 과
7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선발대회 ~사랑나눔 패션페스티벌 2009	2009. 6. 19	기 획 예 산 과
8	전통어업(후릿그물) 재현 ~ 체험행사	2009. 7. 31 ~ 8. 1	해 양 수 산 과
9	포항 소재(素材) 문학작품 공모전	2009. 7. 1 ~ 8. 31	문 화 관 광 과
10	타임캡슐 사업(제막식)	2009. 8. 15	기 획 예 산 과
11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2009. 8. 15(기념일) ※ 경축행사 : 7. 26	기 획 예 산 과
12	「60년 포항」 다큐멘터리 방영	2009. 8. 14 ~ 8. 15	공 보 담 당 관 실
13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 발간	2009. 8. 15	공 보 담 당 관 실
14	영일만항 개장행사(국토해양부)	2009. 9. 23	항 만 정 책 팀
15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	2009. 10. 8 ~ 10. 9	농 업 기 술 센 터
16	전국 향토음식축제	2009. 10. 16 ~ 10. 17	환 경 위 생 과
17	대학문화축제(포항소재 대학 연합)	2009. 11. 6 ~ 11. 7	문 화 관 광 과
18	포항박물관(역사관) 설치	2009 ~ 2013	문 화 관 광 과

2. 문화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

1)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조성

- 구 간 : 657m(포항역~우체국)
- 사 업 비 : 21억원
- 사업기간 : 2007. 6. 25~2007. 8. 30
- 시설현황 : S자형 수로, 족탕 5개소, 아트벤치, 방송설비 등

2) 동빈내항 복원

동빈내항과 형산강간의 수로를 건설하여 동빈내항 정체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상권 회복

- 위 치 : 남구 송도·해도·죽도동 일원
- 규 모 : 수로건설 1.3km(수변 유원지 96,120㎡)
- 사업기간 : 2006~2010
- 사 업 비 : 1,17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포스코 300, 주공 770)

3) 포항미술관 건립

- 위 치 : 북구 환호동 환호해맞이공원
- 규 모 : 8,886㎡(5,241㎡), 지하1층, 지상2층, 별관 2동
- 주요시설 : 전시실, 카페, 수장고 등
- 사업기간 : 2004~2009
- 사 업 비 : 132억원(국비 30, 지방비 102)
- 개관일자 : 2009. 12. 22

4) 새천년기념관 건립

- 위 치 :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해맞이광장
- 규 모 : 5,890㎡(5,074㎡), 지상3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전시실, 화석박물관 등
- 사업기간 : 2005~2009. 12
- 사 업 비 : 107억원(국비 38, 지방비 69)
- 개관일자 : 2009. 12. 31

5)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건립

- 위 치 :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7-1
- 규 모 : 7,654㎡(1,093㎡)
- 주요시설 : 기념관, 역사관(전시관), 상징물 등
- 사업기간 : 2007. 1~2009. 9. 17
- 사 업 비 : 41억원
- 개 관 일 : 2009. 9. 17

6) 포항박물관(역사관) 건립

- 위 치 : 미정
- 규 모 : 17,577㎡(6,600㎡), 지상4층
- 주요시설 : 전시관 등
- 사업기간 : 2010~2013
- 사 업 비 : 950억원(박물관 410, 도서관 360, 토지매입비 180)
- 개관예정 : 2013.

7)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조성

- 위 치 : 남구 동해면 임곡리
- 규 모 : 테마파크 조성 1식(99,500㎡)
- 사업기간 : 2009~2015
- 사 업 비 : 251억원(국비 67, 지방비 184)
- 개관예정 : 미정

8)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 위 치 :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
- 규 모 : 8,433㎡(1,500㎡), 지상1층
- 주요시설 : 김치 전시·홍보 체험관, 전통문화 교육관, 야외 놀이시설 등
- 사업기간 : 2009~2011
- 사 업 비 : 40억원
- 개관예정 : 2011

9) 중앙아트홀 건립

- 위 치 : 북구 덕산동 113-12
- 규 모 : 1,174㎡(2,705㎡),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전시실, 공연실, 사무실, 음향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 2009~2010
- 사 업 비 : 61억원
- 개관예정 : 2010. 7

10) 포항야구장 건립

- 위 치 : 남구
- 규 모 : 건축면적 9,494㎡, 건축연면적 21,074㎡
- 주요시설 : 야구장 및 사무실
- 사업기간 : 2008. 1~2011. 12
- 사 업 비 : 274억원(국비 82, 지방비 192)

11)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테마전시관 건립)

- 위 치 :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 규 모
 - 1단계사업 : 126억원(국비 34, 지방비 35, 민 57)
⇒ 테마거리 구역 : 475m 거리 조성
(테마전시관, 홍보관 건립 및 근대문화유산(가옥)거리 정비)
 - 2단계사업 : 63억원(국비 22, 지방비 22, 민 19)
⇒ 공원 구역 : 전망카페, 공원정비 등 역사성 재현
 - 3단계사업 : 135억원(국비 34, 지방비 101)
⇒ 초등학교 구역 : 유배문학관 조성
⇒ 기타(용역비 등) : 14억원(국비 5, 지방비 9)
⇒ 사 업 비 : 337억원(국비 95, 지방비 166, 민 76)
⇒ 사업기간 : 2010. 1~2018. 10(9년간)

12) 포은도서관

- 위 치 : 북구 덕수동 35-19
- 시설규모 : 3,603㎡, 좌석수 748석, 열람실 4실, 자료실 3실
- 장서현황 : 30,228권
- 추진실적
 - 구 시청사 보수(2개동 철거) : 2007. 1~2
 - 어린이 도서관 개관 : 2007. 3. 2
 - 포은도서관 개관 : 2007. 5. 7
(포항 오천 출신 학자 포은 정몽주의 호를 따서 명칭선정)
 - 다양한 독서진흥 시책 개발 및 운영 : 독서의 달, 어린이 독서 교실, One Book One Pohang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
- 특징
 - 구 시청사를 활용함으로써 주변 지역 활성화
 - 첨단 무선인식 도서관리 프로그램 RFID시스템 구축도서관
 - 2008. 7월부터 야간연장 운영(22:00까지)
 - 무인도서반납기, 24시간 도서예약대출기 구비

13) 영암도서관

- 개관년도 : 1987년
- 위 치 : 남구 대도동 632-11번지
- 시설규모 : 1,701㎡, 지하1층, 지상 3층 352석
- 장서현황 : 68,957권
- 첨단 무선인식 도서관리 프로그램 RFID시스템 구축 : 2008년

14) 오천도서관

- 개관년도 : 1999년
- 위 치 :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1번지
- 시설규모 : 2,548㎡, 지하1층, 지상3층, 364석
- 장서현황 : 34,126권
- 첨단 무선인식 도서관리 프로그램 RFID시스템 구축 : 2008년

15) 동해 석곡도서관

- 개 관 일 : 2009. 3. 27
- 위 치 :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7번지
- 시설규모 : 1,210㎡, 지상 3층, 자료실 2, 열람실 2, 다목적실
- 장서현황 : 12,000권,
- 사 업 비 : 20억(국비 11, 시비 9)
- 첨단 무선인식 도서관리 프로그램 RFID시스템 구축도서관

16) 작은 도서관 건립

구 분	위 치	예산(천원)	규모(㎡)	장서수	비 고
죽장면 (선바위)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4 죽장면민복지회관 2층	89,000 국 : 62,300 시 : 26,700	213	2,352	2008. 5.22 개관
흥해읍 (이 팍)	북구 흥해읍 성내리 1~4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4층	57,000 국 : 35,300 시 : 21,700	74	2,556	2008. 5.23 개관
해도동 (바다섬)	남구 해도동 69~19 해도동 공부방 2층	90,000 시 : 90,000	149	1,770	2009. 1.13 개관
양학동 (부 학)	북구 득량동 4~4 양학치안센터 2층	120,000 국 : 70,000 시 : 50,000	237	1,891	2009. 1.14 개관
신광면 (비학산)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 신광면민복지회관 2층	90,000 시 : 90,000	148	1,863	2009. 1.15 개관
두호동 (두무치)	북구 두호동 1045~6 농업인회관 1층	90,000 시 : 90,000	254	1,923	2009. 1.29 개관
청림동 (푸른숲)	남구 청림동 564~1 청림마을독서실 2층	100,000 국 : 70,000 시 : 30,000	333	1,804	2009. 2. 6 개관
효곡동 (행 복)	남구 효자동 1B 1L SK뷰관리사무소 2층	53,000 시 : 53,000	163	3,000	2009. 4.16 개관
오천읍 (해와달)	남구 오천읍 문덕리 176~2 준양참마을 관리사무소 2층	85,525 시 : 85,525	100	1,800	2009. 5. 6 개관
장량동 (참사랑)	북구 장량동 1578~1 대림골든빌관리사무소 2층	85,525 시 : 85,525	86	1,800	2009. 5. 7 개관

17) 점자도서관 지원사업

- 위 치 : 남구 해도동 33-206 (학산타워 2층, 3층)
- 면 적 : 530㎡(2층, 3층 각 265㎡ 80평)
- 입 대 료 : 250백만원
- 운영주체 :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설립일 1999. 12. 1)
- 장서현황 : 점자도서 800종 5,000권, 녹음도서 3,000종, 테이프 60,000개
- 주요사업
 - 시각장애인용 도서출판 지원사업 : 150백만원
 - 음성정보서비스 지원사업 : 100백만원

18) 문화의 집

- 시설현황 : 2개소(동해, 기계)
- 운영주체 :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 이용시간 : 매일 09:00~20:00(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현황
 - 취미교실(노래, 서예, 꽃꽂이, 인터넷교실 등)
 - 전시회, 사물놀이 등
 - 향후계획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으로 운영

19) 영일민속박물관

- 위 치 :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8
- 개 관 일 : 1983. 10. 29(연간 관람인원 : 27,000명 정도)
- 규 모 : 부지 4,767㎡ 건물 460㎡(전시실 2, 야외전시장 3, 수장고1)
- 소 장 품 : 4,304점(생활용품 1,771, 농어가류 1,142, 고서류 250, 의복류 240, 토기 등 901)

20) 국립등대박물관

- 위 치 :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
- 개 관 일 : 1985. 2. 7 장기갑등대박물관 개관(영일군)
 1996. 장기곶등대박물관 명칭변경
 2002. 4. 19 국립등대박물관 재개관
 2005. 1. 1 운영권 민간위탁, 국토해양부,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 규모 : 부지 21,227㎡, 건물면적 2,752㎡, 전시면적 2,010㎡
- 소장자료 : 585종 4,271점
- 관람인원 : 498,000명(2008년)
- 프로그램 : 등대체험학교, 시낭송회, 주말연화상영, 박물관여행, 바다풍경전 등

21) 덕동민속전시관

- 위치 : 북구 기북면 오덕리 226
- 개관일 : 2004. 5. 5
- 규모 : 부지 395㎡(연면적 83.16㎡)
- 관람인원 : 20,000명(2008년)
- 전시자료 : 유물 600여 점

3. 지역 고유문화 복원 및 전통문화 전승사업

1) 장기읍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고려 현종2년(1101년)에 축조된 성곽으로 동쪽으로 왜적을 막고 북쪽으로 여진족의 해안침입을 대비하여 축조, 그 후 1439년(세종21년) 석성으로 개축하였음.
성곽 1,392m, 높이 5m, 우물 4개소, 못 2개소 있음.

- 위치 :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번지 일원
- 지정내용 : 국가지정 사적 제386호(1994. 3. 17)
- 지정면적 : 124,936㎡
- 사업규모 : 성곽복원 1,400m, 토지보상 124,936㎡, 건물복원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10,500, 도비1,300, 시비3,200)
- 사업기간 : 1998~2010(13년)
- 추진실적 : 성곽복원 859m, 부지매입 14,482㎡, 45억원
- 2008계획 : 성곽복원 100m, 11억원
- 향후계획
 - 성곽복원(405m)을 하여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고취
 - 성곽내부에 대한 복원을 하여 관광자원화 추진

2) 법광사지 발굴 및 복원

신라 진평왕 때 건립되었으며, 건물 규모가 525칸이나 되는 큰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현재 법광사 터에는 1952년에 건립한 법광사가 있고, 석가불사리탑, 연화석불좌대, 쌍두귀부, 당간지주와 조선 영조시대에 세운 사리탑중수비가 남아 있고, 북쪽150m 지점에는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위패를 모신 숭안전이 있음.

- 위 치 :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일원
- 지정내용 : 국가지정 사적 제493호(2008. 1. 30)
- 지정면적 : 24,491㎡
- 사 업 비 : 5,340백만원(발굴비 4,000, 복원비 1,000)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
- 추진실적 : 부지매입 15,484㎡, 236백만원
- 향후계획 : 사유지보상, 발굴 및 복원사업 추진 및 관광자원화

3) 남미질부성 복원 및 공원화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5년(504)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흥해읍 남쪽 돌출된 천연의 구릉지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음.

성벽은 흙을 이겨서 쌓은 토성이며 성벽 둘레가 약 2km나 되는 성곽임. 현재 1개의 못과 1개의 우물이 남아 있음.

- 위 치 : 북구 흥해읍 남성리 101번지 일원
- 지정내용 : 경상북도 기념물 제96호(1994. 4. 16)
- 지정면적 : 84,885㎡
- 사 업 비 : 5,000백만원(부지매입 4,000, 복원 1,000)
- 추진실적 : 부지매입 15,277㎡(1,700백만원)
- 향후계획 : 부지매입 및 저수지(못산지) 발굴 정화사업

4) 칠포리 암각화군 보존 및 관광자원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암각화가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사시대의 자료임. 크게 3개소에 분포되어 있고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작자와 유래는 알 수 없음.

- 위 치
 - 북구 흥해읍 칠포리 201번지 일원
 - 북구 청하면 신흥리 일원(비지정문화재)
- 지정내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9호(1990. 8. 7)
- 지정면적 : 3개소(칠포리 암각화)
- 사업기간 : 2006~2007
- 사업비 : 122백만원
- 암각화 내용
 - 다양한 모양의 암각화로서 윗판모양, 별자리모양 형성
- 사업내용
 - 학술조사용역, 보호책 설치, 진입로 정비
- 추진실적 : 학술용역, 보호책 설치 완료(57백만원)
- 향후계획
 - 암각화 진입로 정비 및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칠포리)
 - 신흥리 암각화에 대하여는 보강처리 및 주변 환경 정비
 - 신흥리 암각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신청

4.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1) 일월문화제의 전승발전

- 연오랑 세오녀 선발(일월문화제 격년제 선발)
 - 기존 선발인원 : 16대 50명
 - 선발인원 : 2쌍
 - ⇒ 1대~7대 : 1쌍(연오랑 세오녀)
 - ⇒ 8대~9대 : 2쌍(해 부부, 달 부부)
 - ⇒ 10대 : 2쌍(정, 부)
 - 선발목적 : 일월사상의 모태가 되는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를 재현하고 일월사상과 빛을 널리 알리고자 함

2) 전통놀이 전승 및 전통음악(국악) 활성화

- 죽장 지계상여놀이
 - 전승 사업자 : 죽장 지계상여 보존회(회장 남정환)
 - 보존회 결성 : 2007. 9. (회원 40명)
 - 지원 사업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죽장 지계상여보존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연습으로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
- 월월이청청
 - 전승 사업자 : 포항문화원
 - 지원 사업비 : 5백만원
 - 참여 인원 : 40명
 - 사업내용 : 동해안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문화로서 정월대보름을 전후 하여 부녀자들이 즐겨하던 전통놀이 문화를 보존하도록 연습하여 전승.

3) 전통예절교육 및 향교지원

- 충효교실 및 전통예절교육
 - 향교의 전통예절교육(생활예절 및 충효사상)
 - 전통문화예절학교 육성(창포초등)
 - 전통 혼례품 구입(흥해향교)
 - 충효교실 운영비(문화원)
 -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향교 4개소)

4) 포항문화원의 기능 확충 및 활성화

- 지역 문화환경 조성 및 창달의 중심역할 기능 수행
 -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
 - 지역문화예술센터(실버학교, 무료공부방)
 - 충효사상 고취 및 문화학교 운영
 - 청소년 역사기행 순례
- 지역 전통문화행사 적극 지원
 -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제 봉행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월월이청청
 - 단오절 행사(읍면동 문화가족)

5) 문화예술단체 능력향상 및 역량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문화예술단체 : 159개 단체(예총 8, 문학 15, 사진 12, 미술 35, 음악 33, 무용 10, 국악 17, 연극 9, 공간문화15, 기타4)
- 포함예총 및 산하단체 운영지원
 - 단체별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따른 지원 확대(문화의 달 등)
 - 창의성 · 개성 있는 창작예술 활동단체 발굴지원 확대
- 향교 전통문화사업의 전승
 - 전통 예절학교 교육사업(생활예절, 충효정신)
 - 기로연 행사재연 사업
-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 공연작품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 지원단체 : 17개 단체
 - 지원액 : 123,000천원
 - 사업내용 : 무대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사업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연작품 : 연극, 음악, 국악 등
 - 지원단체 : 8개 단체
 - 지원액 : 32,000천원
 - 사업내용 : 경로당, 불우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
 -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 40회
 - 사업내용 : 학교, 기업체, 공원, 복지시설 등 순회공연
- 우수예술단 초청 기획 공연
- 테마가 있는 음악회(교향악단, 합창단)

6) 제8회 일월문화제 행사

- 행사기간 : 2009. 10. 8 ~ 10. 12(격년제 실시)
- 행사장소 : 중앙상가 실개천, 환호해맞이공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시내일원
- 참여기관 : 포항문화원의외 포항의 문화예술단체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정도
- 행사종목 : 연오랑 세오녀 선발 외 29개정도

- 개막행사 :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 시민노래자랑 등
- 전시행사 : 수석, 분재, 서예, 서각전시회
- 공연행사 : 무용, 연극, 음악, 실버가요제 등
- 체험행사 : 도자기 무료체험 및 전시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우리전통차 체험 행사,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 및 체험행사 등
- 부대행사 : 포항의 과거 사진전시회, 불빛축제 사진전시회

7) 포항바다국제연극제 공연

- 기 간 : 2009. 7. 27~8. 4(9일간)
- 장 소 : 환호해맞이공원,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여단체 : 19개 극단 (해외 4, 국내 15)
- 사 업 비 : 336백만원(국비 80, 도비 90, 시비 90, 자부담 76)

8) 제6회 국제불빛축제의 세계화

- 행사기간 : 2009. 7. 25~7. 26
- 행사장소 : 북부해수욕장, 형산강 체육공원, 시내일원
- 사 업 비 : 12.8억원(POSCO 8, 도비 0.4, 시비 4.4)
- 주최기관 : 포항시(행사대행~포항MBC, 불꽃주관~POSCO)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으로 포항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불빛축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발전
- 행사내용
 - 국제 뮤직불꽃연출 메인 및 미니급으로 양일간 개최
 - 불빛축제 연계행사
 - ⇒ 시 승격60주년 기념식, 불빛 퍼레이드,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M-SUPER 콘서트, 용선대회, 한여름밤 콘서트, 클린캠페인 등
- 중점사항
 - 시 승격60주년 통합개최
 - 기간은 짧지만 집중된 축제로 내실을 기함
 - 불빛 퍼레이드 대폭확대 개편
 - 국내 최정상 연예인 섭외로 60주년 경축분위기 고조

9) KBS 1TV 역사스페셜 '제1회, 『연오랑 세오녀, 일본의 신이 되었나?』 방영

- 일 시 : 2009. 7. 4(토) 20:00~21:00
- 담당PD : 김영선
- 진행 : 한상권 · 엄지인 아나운서
- 〈연오랑과 세오녀〉(보도자료)

먼 옛날,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바위를 타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갔다. 그 뒤 해와 달이 사라졌고, 세오녀가 짝 비단을 가져와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돌아왔다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연오랑과 세오녀는 단지 설화속의 인물일까?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연오랑 세오녀 신화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본다.

10) 제12회 한민족해맞이축전의 활성화

- 행사기간 : 2009.12. 31~2010. 1. 1(2일간)
- 행사장소 : 호미곶 해맞이 광장
- 참여인원 : 25만명 정도
- 추진방향
 - 전야 및 자정행사 : 2009. 12. 31. 16:00~익일 01:00까지
 - 해맞이행사 : 2010. 1. 1. 06:30~10:00(대표 행사의 발굴)
 - 부대행사 : 각종 공연 및 퍼포먼스, 떡국 만들기, 떡거리 등